

2006학년도 제주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

김민철* · 김두화**

〈 목 차 〉

I. 서 론	IV. 요약 및 결론
II. 조사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분석 및 해석	<Abstract>

I. 서 론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대학교육도 그 모습과 성격을 달리해 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교육의 자율화가 강조됨에 따라 대학자체의 변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상황이다(김창일의 6인, 2001).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고등학교 졸업생수 보다 대학의 입학생수가 더 많아진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표면화 되고 있으며, 학생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인해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폐교 위기에 빠진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다(소황옥의 2인, 2004).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현실화 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국·공립 대학 통합에 따른 각종 지원책들을 통해 국·공립대학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재건을 목표로 하여 국립대학의 재편성 및 통합을 통해 국립대학의 수를 12개로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21세기에 100개 대학을 세계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인 '211 공정'을 통해

*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교수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총 733개의 대학을 288개 대학으로 통합 및 합병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종합 대학화 및 중점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세계일보, 2004).

21세기의 대학교육은 서비스 차원으로 재개념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을 동반자로 생각하며 대학문화의 공동형성자로, 또한 대학발전의 주체로 생각한다. 그들이 대학에서 학습하는 동안 만남과 나눔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성지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특성을 차별화시켜 졸업과 동시에 만족한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각종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을 위한 공간을 재배치하였고, 취업정보자료실과 인터넷 카페, 상담실을 공유하게 되어 상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이번에 재학생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도약하는 제주대학교의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2006년 재학생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학교행정과 학생지도에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2) 본교 관련, 3) 대학생활 관련, 4) 개인 생활관 및 가치관 관련, 5) 취업 관련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전반적인 실태 및 의식과 학교에 대한 생각들을 파악하고, 매년 실시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계속적인 변화 추세를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생들의 대학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와 연구 및 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Ⅱ.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50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8명을 제외한 83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한 재학생들의 단과대학, 학년, 성별 분포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단과대학, 학년, 성별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단과 대학	인 문 대 학	137	16.5
	법 정 대 학	92	11.1
	경 상 대 학	141	16.9
	사 범 대 학	70	8.4
	생명자원과학대학	58	7.0
	해양과학대학	70	8.4
	자연과학대학	107	12.9
	공 과 대 학	125	15.0
	의 과 대 학	32	3.8
	합	계	832
학 년	1 학 년	192	23.1
	2 학 년	216	26.0
	3 학 년	201	24.2
	4 학 년	223	26.8
	합	계	832
성 별	남	462	55.5
	여	370	44.5
	합	계	832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 가계 월평균 소득

2) 본교 관련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 본교에 대한 긍지,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휴학 계획

3) 대학생활 관련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 복수전공 계획,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원하는 강의형태

4) 개인생활·가치관 관련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한 달 용돈, 용돈 출처, 용돈 주사용처, 아르바이트 목적, 흡연여부, 음주여부, 이성교제 경험유무,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5) 취업 관련

졸업 후 진로,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직업능력개발원 인지여부,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여부, 직업능력개발원 상담 선호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여부,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우리 대학에 바라는 점

3. 조사실시 및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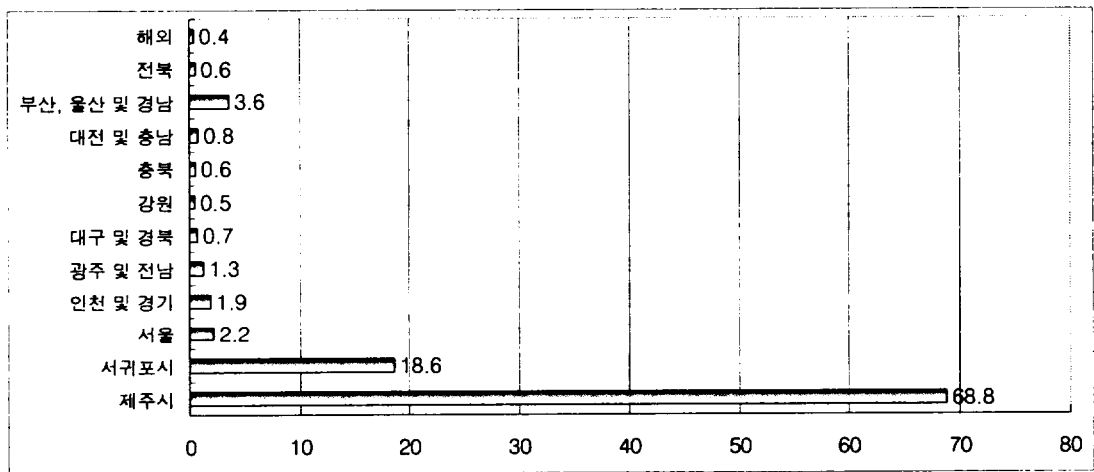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06년 10월 제주대학교 학부(과)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되었으며, 총 850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832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학별, 학년별,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및 해석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아래의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68.8%가 제주시 출신이었고, 서귀포시 18.6%, 타 시·도 출신은 12.2%, 해외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 출신이 87.4%였으며, 타 시·도 출신은 12.2%로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경우에는 부산 및 경남 출신이 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학생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단과대학별로는 <표 3-1>에 나타난 것 처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사범대(98.6%)이었으며, 이어서 법정대(96.7%), 인문대(93.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과대(62.6%), 생명대(67.2%)는 상대적으로 제주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표 3-1> 처럼 1학년의 경우 68.8%가 제주시 출신이고 서귀포시 17.2%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출신이 8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 62.0%가 제주시 출신이고 서귀포시 22.2%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출신이 8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73.6%가 제주시 출신이고 서귀포시 14.9%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출신이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 70.9%가 제주시 출신이고 서귀포시 19.7%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출신이 9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제주도 출신이 87.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8.2%가 제주시 출신이었고, 서귀포시 17.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 출신이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69.5%가 제주시 출신이었고, 서귀포시 20.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제주도 출신이 87.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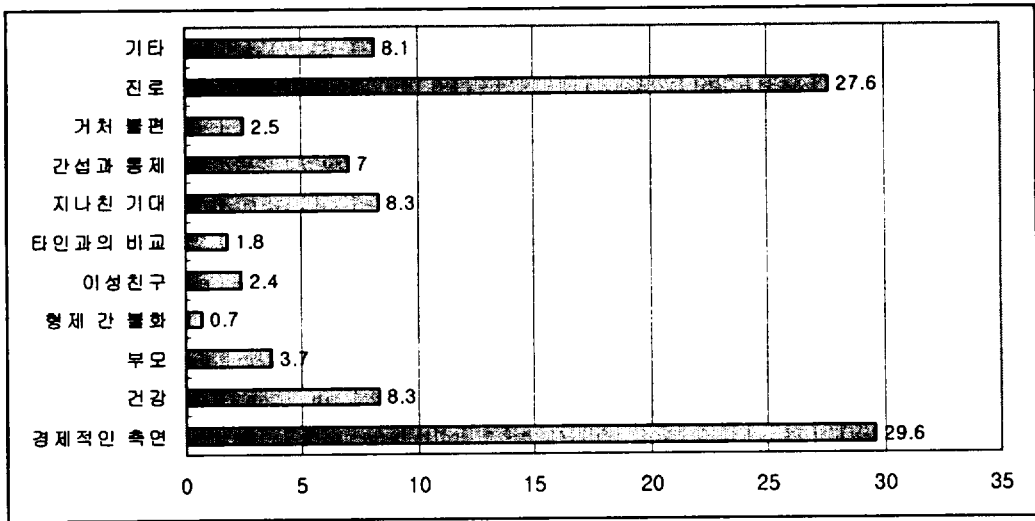
<표 3-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제 주 시	100 (73.0)	83 (90.2)	76 (53.9)	55 (78.6)	30 (51.7)	52 (74.3)	64 (59.8)	98 (78.4)	14 (43.8)	132 (68.8)	134 (62.0)	148 (73.6)	158 (70.9)	315 (68.2)	257 (69.5)	572 (68.8)
서귀포시	28 (20.4)	6 (6.5)	37 (26.2)	14 (20.0)	9 (15.5)	8 (11.4)	29 (24.4)	18 (14.4)	6 (18.8)	33 (22.2)	48 (14.9)	30 (14.9)	44 (19.7)	80 (17.3)	75 (20.3)	155 (18.6)
서 울	6 (4.4)	2 (2.2)	3 (2.1)		2 (3.4)	1 (1.4)	2 (1.9)	1 (0.8)	1 (3.1)	1 (0.5)	7 (3.2)	5 (2.5)	5 (2.2)	8 (1.7)	10 (2.7)	18 (2.2)
인천 및 경 기			5 (3.5)		4 (6.9)	5 (7.1)	1 (0.9)	1 (0.8)		2 (1.0)	8 (3.7)	3 (1.5)	3 (1.3)	14 (3.0)	2 (0.5)	16 (1.9)
광주 및 전 남	2 (1.5)		2 (1.4)		3 (5.2)		1 (0.9)	1 (0.8)	2 (6.3)	4 (2.1)	3 (1.4)	3 (1.5)	1 (0.4)	9 (1.9)	2 (0.5)	11 (1.3)
대구 및 경 북			2 (1.4)		1 (1.7)		1 (0.9)	1 (0.8)	1 (3.1)	2 (1.0)	2 (0.9)	1 (0.5)	1 (0.4)	4 (0.9)	2 (0.5)	6 (0.7)
강 원			1 (0.7)			1 (1.4)	1 (0.9)	1 (0.8)		1 (0.5)		1 (0.5)	2 (0.9)	1 (0.2)	3 (0.8)	4 (0.5)
충 북			2 (1.4)		1 (1.7)	1 (1.4)			1 (3.1)		3 (1.4)	2 (1.0)		3 (0.6)	2 (0.5)	5 (0.6)
대전 및 충 남			1 (0.7)		2 (3.4)		3 (2.8)	1 (0.8)		3 (1.6)	2 (0.9)	1 (0.5)	1 (0.4)	4 (0.9)	3 (0.8)	7 (0.8)
부산 울산 및 경남		1 (1.1)	9 (6.4)	1 (1.4)	5 (8.6)	2 (2.9)	4 (3.7)	2 (1.6)	6 (18.8)	12 (6.3)	7 (3.2)	6 (3.0)	5 (2.2)	18 (3.9)	12 (3.2)	30 (3.6)
전 북	1 (0.7)		2 (1.4)				1 (0.9)	1 (0.8)		1 (0.5)	1 (0.5)	1 (0.5)	2 (0.9)	4 (0.9)	1 (0.3)	5 (0.6)
해 외			1 (0.7)		1 (1.7)				1 (3.1)	1 (0.5)	1 (0.5)		1 (0.4)	2 (0.4)	1 (0.3)	3 (0.4)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2)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아래의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이 29.6%로 가장 많았고, 진로 27.6%, 건강, 지나친 기대 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단과대학별로는 <표 3-2>에 나타난 것 처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양대(44.3%), 인문대(29.2%), 사범대(27.1%)는 경제적 측면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법정대(29.3%), 경상대(30.5%), 생명대(31.0%), 자연대(30.8%), 공과대(31.2%), 의과대(21.9%)은 진로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측면(33.3%)이 가장 많았고, 진로(24.0%), 간섭과 통제(10.4%), 지나친 기대(9.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는 경제적 측면(27.8%)이 가장 많았고, 진로(23.1%), 건강(10.6%), 지나친 기대(8.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진로(35.3%)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측면(28.9%), 건강(9.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 경제적 측면(28.7%)이 가장 많았고, 진로(28.3%), 건강(9.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측면(31.2%)이 가장 많았고, 진로(29.2%), 건강(7.8%), 지나친 기대(7.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측면(27.6%)이 가장 많았고, 진로(25.7%), 간섭과 통제(9.5%), 기타(9.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2>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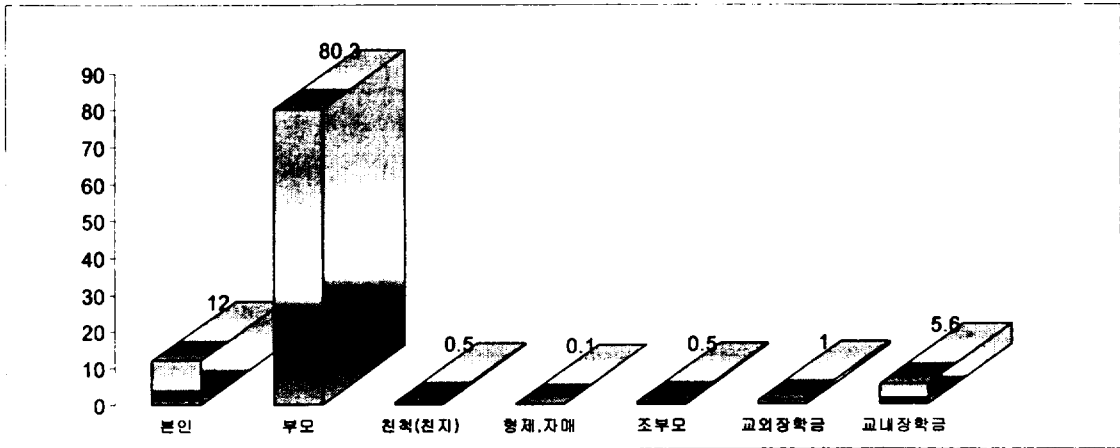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경제적 인측면	40 (29.2)	24 (26.1)	42 (29.8)	19 (27.1)	15 (25.9)	31 (44.3)	31 (29.0)	38 (30.4)	6 (18.8)	64 (33.3)	60 (27.8)	58 (28.9)	64 (28.7)	144 (31.2)	102 (27.6)	246 (29.6)
건 강	10 (7.3)	7 (7.6)	14 (9.9)	3 (4.3)	5 (8.6)	5 (7.1)	10 (9.3)	12 (9.6)	3 (9.3)	8 (4.2)	23 (10.6)	18 (9.0)	20 (9.0)	36 (7.8)	33 (8.9)	69 (8.3)
부 모	6 (4.4)	9 (9.8)	4 (2.8)	2 (2.9)	1 (1.7)	4 (5.7)		5 (4.0)		7 (3.6)	12 (5.6)	6 (3.0)	6 (2.7)	16 (3.5)	15 (4.1)	31 (3.7)
형제간 불 화	1 (0.7)	1 (1.1)		1 (1.4)		1 (1.4)	1 (0.9)		1 (3.1)	2 (1.0)	2 (0.9)		2 (0.9)	3 (0.6)	3 (0.8)	6 (0.7)
이 성 친 구	3 (2.2)	2 (2.2)	1 (0.7)		3 (5.2)	6 (8.6)	4 (3.7)		1 (3.1)	3 (1.6)	7 (3.2)	5 (2.5)	5 (2.2)	14 (3.0)	6 (1.6)	20 (2.4)
타인과의 비교	1 (0.7)	1 (1.1)		1 (1.4)	3 (5.2)	4 (5.7)	3 (2.8)	1 (0.8)	1 (3.1)	2 (1.0)	4 (1.9)	3 (1.5)	6 (2.7)	11 (2.4)	4 (1.1)	15 (1.8)
지나친 기 대	9 (6.6)	9 (9.8)	13 (9.2)	3 (4.3)	3 (5.2)	5 (7.1)	13 (12.1)	11 (8.8)	3 (9.4)	19 (9.9)	19 (8.8)	12 (6.0)	19 (8.5)	36 (7.8)	33 (8.9)	69 (8.3)
간섭과 통 제	10 (7.3)	4 (4.3)	11 (7.8)	11 (15.7)	4 (6.9)	3 (4.3)	3 (2.8)	10 (8.0)	2 (6.3)	20 (10.4)	17 (7.9)	7 (3.5)	14 (6.3)	23 (5.0)	35 (9.5)	58 (7.0)
거 처 불 편	5 (3.6)	2 (2.2)	1 (0.7)	3 (4.3)	1 (1.7)	3 (4.3)	2 (1.9)	3 (2.4)	1 (3.1)	4 (2.1)	5 (2.3)	7 (3.5)	5 (2.2)	12 (2.6)	9 (2.4)	21 (2.5)
진 로	38 (27.7)	27 (29.3)	43 (30.5)	18 (25.7)	18 (31.0)	7 (10.0)	33 (30.8)	39 (31.2)	7 (21.9)	46 (24.0)	50 (23.1)	71 (35)	63 (28.3)	135 (29.2)	95 (25.7)	230 (27.6)
기 타	14 (10.2)	6 (6.5)	12 (8.5)	9 (12.9)	5 (8.6)	1 (1.4)	7 (6.5)	6 (4.8)	7 (21.9)	17 (8.9)	17 (7.9)	14 (7.0)	19 (8.5)	32 (6.9)	35 (9.5)	67 (8.1)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3)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는 아래의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80.3%가 부모였고, 본인(12.0%), 장학금(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표 3-3>에 나타난 것 처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비 부모 부담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의과대(93.8)이었으며 이어서 인문대(86.1%), 경상대(85.8%) 등의 순이며, 해양대는 가장 낮은 54.3%를 나타냈다. 해양대가 타 대학과의 비율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BK21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장학금 수혜로 판단된다.



[그림 3-3]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1학년의 경우가 부모 부담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84.9%), 3학년이 부모 부담 비율이(75.6%)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76.2%가 부모 부담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85.4%로 남자 보다 여자가 부모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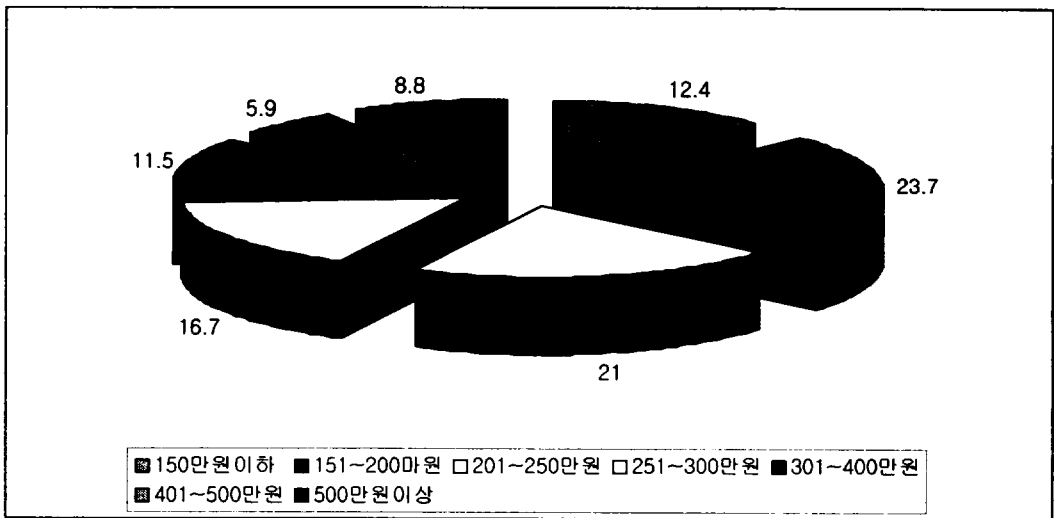
<표 3-3>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본 인	9 (6.6)	13 (14.1)	15 (10.6)	9 (12.9)	4 (6.9)	17 (24.3)	19 (17.8)	13 (10.4)	1 (3.1)	20 (10.4)	23 (10.6)	30 (14.9)	27 (12.1)	66 (14.3)	34 (9.2)	100 (12.0)	
부 모	118 (86.1)	72 (78.3)	121 (85.8)	57 (81.4)	49 (84.5)	38 (54.3)	82 (76.6)	101 (80.8)	30 (90.8)	163 (84.9)	174 (80.6)	152 (75.6)	179 (80.3)	352 (76.2)	316 (85.4)	668 (80.3)	
친 척	2 (1.5)		1 (0.7)					1 (0.8)		1 (0.5)		2 (1.0)	1 (0.4)	3 (0.6)	1 (0.3)	4 (0.5)	
형 제, 자 매						1 (1.4)				1 (0.5)				1 (0.2)		1 (0.1)	
조부모	1 (0.7)		1 (0.7)	1 (1.4)				1 (0.8)		2 (1.0)			2 (0.9)	3 (0.6)	1 (0.3)	4 (0.5)	
교 외 장 학 금	1 (0.7)	3 (0.0)	1 (0.7)			1 (1.4)		2 (1.6)			3 (1.4)	3 (1.5)	2 (0.9)	4 (0.9)	4 (1.1)	8 (1.0)	
교 내 장 학 금	6 (4.4)	4 (4.3)	2 (1.4)	3 (4.3)	5 (8.6)	13 (18.6)	6 (5.6)	7 (5.6)	1 (3.1)	5 (2.6)	16 (7.4)	14 (7.0)	12 (5.4)	33 (7.1)	14 (3.8)	47 (5.6)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4) 가계 월평균 소득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가계 월평균 소득은 아래의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계 월평균 소득은 151만원~200만원이 23.7%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250만원(21.0%), 251만원~300만원(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가계 월평균 소득

단과대학별로는 <표 3-4>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정대(18.5%), 경상대(20.6%), 생명대(24.1%), 해양대(31.4%), 공과대(32.0%)은 151만원~200만원이 가장 많았지만, 인문대(26.3%), 사범대(28.6%), 자연대(24.3%)은 201만원~25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의 경우, 301만원~400만원(25.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과대학 중 가장 높은 가계 월평균 소득을 나타냈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24.5%), 2학년(25.5%), 4학년(25.6%)의 경우 151만원~200만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3학년은 201만원~250만원이 19.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계 월평균 소득이 151만원~200만원이 25.3%로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151만원~200만원과 201만원~250만원이 똑같이 2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가계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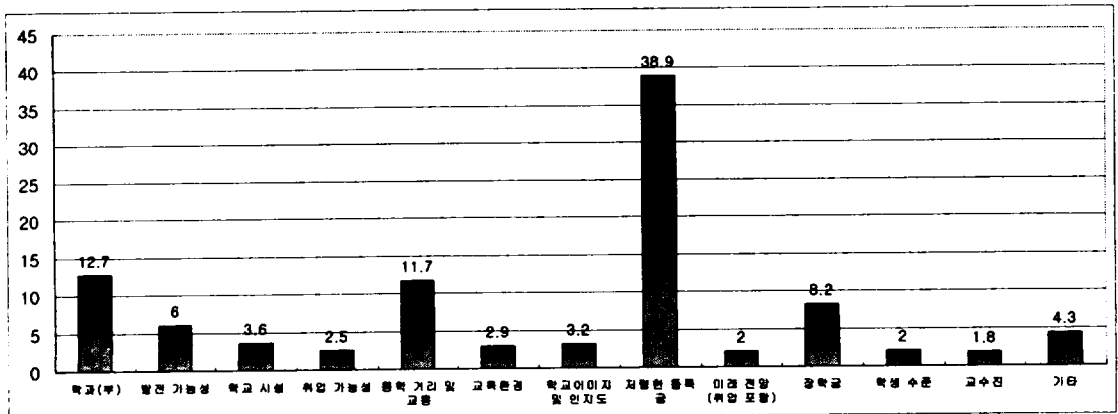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150만원 이하	9 (6.6)	11 (12.0)	17 (12.1)	10 (14.3)	9 (15.5)	7 (10.0)	22 (20.6)	17 (13.6)	1 (3.1)	26 (13.5)	34 (15.7)	28 (13.9)	15 (6.7)	62 (13.4)	41 (11.1)	103 (12.4)
151~200만원	29 (21.2)	17 (18.5)	29 (20.6)	14 (20.0)	14 (24.1)	22 (31.4)	25 (23.4)	40 (32.0)	7 (21.9)	47 (24.5)	55 (25.5)	38 (18.9)	57 (25.6)	117 (25.3)	80 (21.6)	197 (23.7)
201~250만원	36 (26.3)	16 (17.4)	27 (19.1)	20 (28.6)	10 (17.2)	16 (22.9)	26 (24.3)	23 (18.4)	1 (3.1)	39 (20.3)	43 (19.9)	40 (19.9)	53 (23.8)	95 (20.6)	80 (21.6)	175 (21.0)
251~300만원	21 (15.3)	17 (18.5)	28 (19.9)	11 (15.7)	11 (19.0)	17 (24.3)	12 (11.2)	16 (12.8)	6 (18.8)	36 (18.8)	32 (14.8)	33 (16.4)	38 (17.0)	75 (16.2)	64 (17.3)	139 (16.7)
301~400만원	18 (13.1)	15 (16.3)	18 (12.8)	6 (8.6)	7 (12.1)	5 (7.1)	5 (4.7)	14 (11.2)	8 (25.0)	16 (8.3)	27 (12.5)	24 (11.9)	29 (13.0)	49 (10.6)	47 (12.7)	96 (11.5)
401~500만원	12 (8.8)	4 (4.3)	7 (5.0)	2 (2.9)	2 (3.4)	1 (1.4)	9 (8.4)	7 (5.6)	5 (15.6)	9 (4.7)	9 (4.2)	15 (7.5)	16 (7.2)	21 (4.5)	28 (7.6)	49 (5.9)
500만원 이상	12 (8.8)	12 (13.0)	15 (10.6)	7 (10.0)	5 (8.6)	2 (2.9)	8 (7.5)	8 (7.5)	4 (12.5)	19 (9.9)	16 (7.4)	23 (11.4)	15 (6.7)	43 (9.3)	30 (8.1)	73 (8.8)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2. 본교 관련

1)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

2006학년도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아래의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38.9%가 저렴한 등록금을 들었고 학과(부)(12.7%), 통학거리 및 교통(11.7%), 장학금(8.2%), 발전 가능성(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

단과대학별로는 <표 3-5>에 나타난 것 처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문대(43.8%), 법정대(33.7%), 경상대(51.1%), 사범대(47.1%), 해양대(32.9%), 자연대(37.4%), 공과대(30.4%), 의과대(46.9%) 순으로 저렴한 등록금이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나타났고, 생명대(22.4%)만 학과(부)가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1학년(44.8%), 2학년(37.5%), 3학년(35.3%), 4학년(38.6%) 모두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이 저렴한 등록금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38.5%), 여학생(39.5%) 모두 저렴한 등록금이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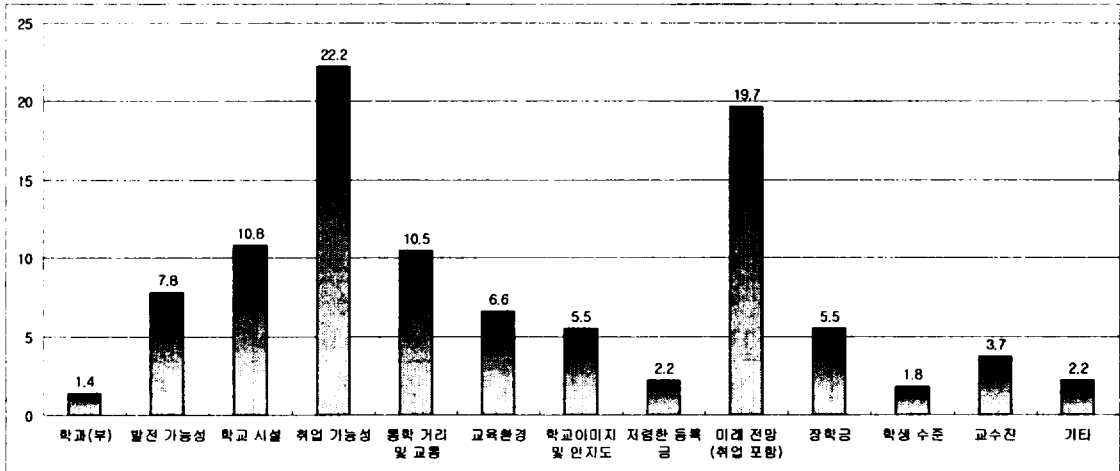
<표 3-5>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학과(부)	15 (10.9)	14 (15.2)	16 (11.3)	8 (11.4)	13 (22.4)	6 (8.6)	16 (15.0)	10 (8.0)	8 (25.0)	26 (13.5)	29 (13.4)	24 (11.9)	27 (12.1)	56 (12.1)	50 (13.5)	106 (12.7)
발 전 가 능 성	7 (5.1)	9 (9.8)	8 (5.7)			7 (10.0)	6 (5.6)	13 (10.4)		12 (6.3)	11 (5.1)	14 (7.0)	13 (5.8)	34 (7.4)	16 (4.3)	50 (6.0)
학 교 시 설	3 (2.2)	4 (4.3)	5 (3.5)		3 (5.2)	2 (2.9)	4 (3.7)	7 (5.6)	2 (6.3)	7 (3.6)	8 (3.7)	9 (4.5)	6 (2.7)	16 (3.5)	14 (3.8)	30 (3.6)
취 업 가 능 성	6 (4.4)	2 (2.2)	1 (0.7)		4 (6.9)	1 (1.4)	2 (1.9)	2 (1.6)	3 (9.4)	3 (1.6)	8 (3.7)	4 (2.0)	6 (2.7)	15 (3.2)	6 (1.6)	21 (2.5)
통학거리 및 교통	14 (10.2)	12 (13.0)	17 (12.1)	15 (21.4)	7 (12.1)	4 (5.7)	11 (10.3)	16 (12.8)	1 (3.1)	17 (8.9)	27 (12.5)	25 (12.4)	28 (12.6)	45 (9.7)	52 (14.1)	97 (11.7)
교 육 환 경	9 (6.6)		3 (2.1)	1 (1.4)	1 (1.7)	2 (2.9)	6 (5.6)	2 (1.6)		2 (1.0)	9 (4.2)	6 (3.0)	7 (3.1)	11 (2.4)	13 (3.5)	24 (2.9)
학교이미지 및 인지도	4 (2.9)	2 (2.2)	3 (2.1)	1 (1.4)	3 (5.2)	4 (5.7)	2 (1.9)	8 (6.4)		6 (3.1)	5 (2.3)	11 (5.5)	5 (2.2)	15 (3.2)	12 (3.2)	27 (3.2)
저 렴 한 등 록 금	60 (43.8)	31 (33.7)	72 (51.1)	33 (47.1)	12 (20.7)	23 (32.9)	40 (37.4)	38 (30.4)	15 (46.9)	86 (44.8)	81 (37.5)	71 (35.3)	86 (38.6)	178 (38.5)	146 (39.5)	324 (38.9)
미 래 전 망 (취업포함)		1 (1.1)	3 (2.1)	1 (1.4)	3 (5.2)	3 (4.3)	4 (3.7)	1 (0.8)	1 (3.1)	4 (2.1)	5 (2.3)	1 (0.5)	7 (3.1)	13 (2.8)	4 (1.1)	17 (2.0)
장 학 금	7 (5.1)	6 (6.5)	8 (5.7)		6 (20.7)	14 (20.0)	13 (12.1)	13 (10.4)	1 (3.1)	14 (7.3)	21 (9.7)	15 (7.5)	18 (8.1)	35 (7.6)	33 (8.9)	68 (8.2)
학 생 준 수	1 (0.7)	5 (5.4)	3 (2.1)	3 (4.3)	3 (5.2)			2 (1.6)		8 (4.2)	1 (0.5)	4 (2.0)	4 (1.8)	10 (2.2)	7 (1.9)	17 (2.0)
교 수 진 단	3 (2.2)	3 (3.3)		4 (4.3)		1 (1.4)		3 (2.4)	1 (3.1)	2 (1.0)	4 (1.9)	4 (2.0)	5 (2.2)	10 (2.2)	5 (1.4)	15 (1.8)
기 타	8 (5.8)	3 (3.3)	2 (1.4)	4 (4.3)	3 (5.2)	3 (4.3)	3 (2.8)	10 (8.0)		5 (2.6)	7 (3.2)	13 (6.5)	11 (4.9)	24 (5.2)	12 (3.2)	36 (4.3)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2)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은 아래의 [그림 3-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취업 가능성(22.2%), 미래 전망(19.7%), 학교시설 (10.8%), 통학거리 및 교통(10.5%), 교육환경(6.6%), 발전 가능성(7.8%) 학교이미지 및 장학금(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

단과대학별로는 재학생들의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6]참조>). 법정대(38.0%), 경상대(23.4%), 사범대(24.3%), 자연대(22.4%)는 취업 가능성을 가장 불만족한 부분으로 꼽았고, 인문대(22.6%), 해양대(21.4%), 공과대(26.4%)는 미래 전망을 꼽았다. 생명대는 32.8%의 학생이 학교시설을 불만족한 부분으로 꼽아서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과대의 경우는 통학거리 및 교통(21.9%)이 가장 불만족한 부분으로 나타나 다른 단과대학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라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을 살펴보면 1학년과 3학년은 미래 전망(1학년 19.3%, 3학년 21.4%), 취업 가능성(1학년 16.7%, 3학년 19.4%)순으로 불만족한 부분이 나타난 반면, 2학년과 4학년은 1, 3학년과 순위가 바뀐 취업 가능성(2학년 23.1%, 4학년 28.7%), 미래 전망(2학년 18.5%, 4학년 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 전망과 취업 가능성은 결국 나중의 취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취업에 관해서 가장 불만족하다고 나타난 것이다.

성별에 따라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취업 가능성(22.7%),

미래 전망(21.0%), 학교시설(11.5%)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취업 가능성(21.6%), 미래 전망(18.1%), 통학거리 및 교통(12.7%)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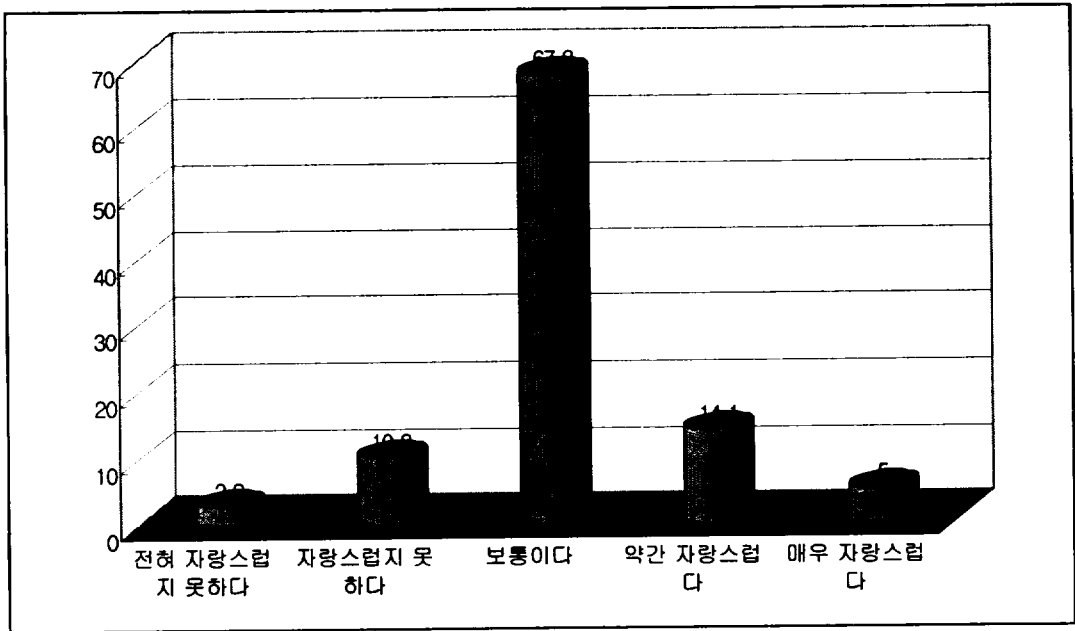
<표 3-6>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학과(부)		3 (3.3)	1 (0.7)			1 (1.4)	4 (3.7)	2 (1.6)	1 (3.4)	3 (1.6)	3 (1.4)	3 (1.5)	3 (1.3)	6 (1.3)	6 (1.6)	12 (1.4)
발 전 가 능 성	7 (5.1)	8 (8.7)	15 (10.6)	7 (10.0)	4 (6.9)	8 (11.4)	9 (8.4)	3 (2.4)	4 (12.5)	15 (7.8)	14 (6.5)	11 (5.5)	25 (11.2)	31 (6.7)	34 (9.2)	65 (7.8)
학 교 시 설	14 (10.2)	6 (6.5)	11 (7.8)	12 (17.1)	19 (32.8)	2 (2.9)	8 (7.5)	14 (11.2)	4 (12.5)	22 (11.5)	20 (9.3)	30 (14.9)	18 (8.1)	53 (11.5)	37 (10)	90 (10.8)
취 업 가 능 성	26 (19.0)	35 (38.0)	33 (23.4)	17 (23.4)	8 (13.8)	14 (20.0)	24 (22.4)	24 (19.2)	4 (12.5)	32 (16.7)	50 (23.1)	39 (19.4)	64 (28.7)	105 (22.7)	80 (21.6)	185 (22.2)
통학거리 및 교통	16 (11.7)	4 (4.3)	18 (12.8)	4 (5.7)	4 (6.9)	4 (5.7)	18 (16.8)	12 (9.6)	7 (21.9)	29 (15.1)	28 (13.0)	16 (8.0)	14 (6.3)	40 (8.7)	47 (12.7)	87 (10.5)
교 육 환 경	9 (6.6)	5 (5.4)	7 (5.0)	5 (7.1)	2 (3.4)	5 (7.1)	6 (5.6)	11 (8.8)	5 (15.6)	10 (5.2)	12 (5.6)	17 (8.5)	16 (7.2)	34 (7.4)	21 (5.7)	55 (6.6)
학교이미지 및 인지도	5 (3.6)	3 (3.3)	7 (5.0)	2 (2.9)	2 (3.4)	14 (20.0)	6 (5.6)	4 (3.2)	3 (9.4)	12 (6.3)	15 (6.9)	8 (0.4)	11 (4.9)	27 (5.8)	19 (5.1)	46 (5.5)
저 령 한 등 록 금	1 (0.7)	1 (1.1)	2 (1.4)		2 (3.4)	1 (1.4)	6 (5.6)	5 (0.4)		5 (2.6)	4 (1.9)	2 (0.1)	7 (3.1)	11 (2.4)	7 (1.9)	18 (2.2)
미래전망 (취업 포함)	31 (22.6)	17 (18.5)	29 (20.6)	12 (17.1)	9 (15.5)	15 (21.4)	18 (16.8)	33 (26.4)		37 (19.3)	40 (18.5)	43 (21.4)	44 (19.7)	97 (21)	67 (18.1)	164 (19.7)
장 학 금	16 (11.7)	2 (2.2)	9 (6.4)	5 (7.1)	3 (5.2)		4 (3.7)	6 (4.8)	1 (3.1)	14 (7.3)	15 (6.9)	12 (6)	5 (2.2)	21 (4.5)	25 (6.8)	46 (5.5)
학 생 수 준		3 (3.3)	1 (0.7)	1 (1.4)	2 (3.4)	2 (2.9)	3 (2.8)	2 (1.6)	1 (3.1)	4 (2.1)	1 (0.5)	7 (3.5)	3 (1.3)	9 (1.9)	6 (1.6)	15 (1.8)
교 수 진	9 (6.6)	2 (2.2)	7 (5.0)	2 (2.9)		2 (2.9)	1 (0.9)	8 (6.4)		6 (3.1)	9 (4.2)	8 (0.4)	8 (3.6)	18 (3.9)	13 (3.5)	31 (3.7)
기 타	3 (2.2)	3 (3.3)	1 (0.7)	3 (4.3)	3 (5.2)	2 (2.9)		1 (0.8)	2 (6.3)	3 (1.6)	5 (2.3)	5 (2.5)	5 (2.2)	10 (2.2)	8 (2.2)	18 (2.2)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3) 본교에 대한 긍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본교에 대한 긍지는 아래의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19.1%가 본교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했고, 13.1%가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대답하여, 본교에 대한 긍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본교에 대한 긍지

단과대학별로 본교에 대한 긍지는 경상대(24.1%), 법정대(23.9%), 생명대(20.7%) 등의 순으로 긍지를 느낀다고 대답했고 의과대(15.7%)와 인문대(12.4%)가 가장 긍지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참조>).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 16.7%, 2학년 21.3%, 3학년 19.4%, 4학년 18.8%으로 나타나 1학년이 가장 긍지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20.8%가 자랑스럽다고 대답했으나, 여학생의 경우 17.1%가 자랑스럽다고 대답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긍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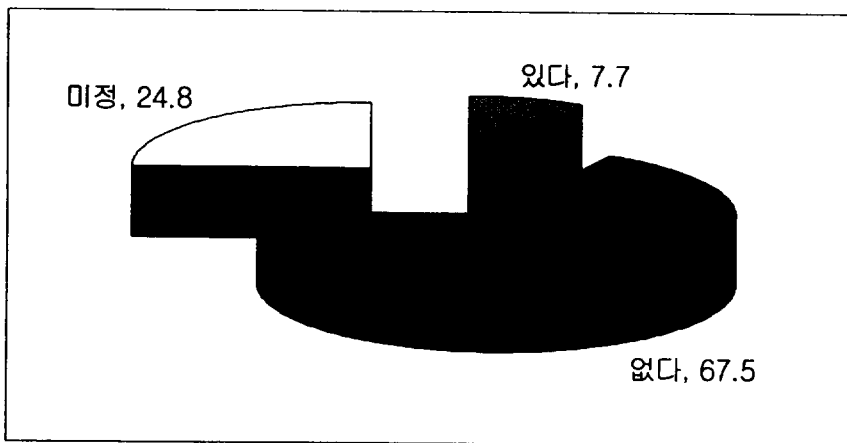
<표 3-7> 본교에 대한 긍지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전혀 자랑스럽지 못하다	3 (2.2)	2 (2.2)	4 (2.8)	1 (1.4)	3 (5.2)		4 (3.7)	7 (5.6)		2 (0.1)	6 (2.8)	8 (0.4)	8 (3.6)	20 (4.3)	4 (1.1)	24 (2.9)
자랑스럽지 못하다	11 (0.8)	7 (7.6)	8 (5.7)	6 (8.6)	7 (12.1)	13 (18.6)	10 (9.3)	17 (13.6)	6 (18.8)	25 (13.0)	18 (8.3)	19 (9.5)	23 (10.3)	60 (13)	25 (6.8)	85 (10.2)
보통이다	106 (77.4)	61 (66.3)	95 (67.4)	50 (71.4)	36 (62.1)	44 (62.9)	73 (68.2)	78 (62.4)	21 (65.6)	133 (69.3)	146 (67.6)	135 (67.2)	150 (67.3)	286 (61.9)	278 (75.1)	564 (67.8)
약간 자랑스럽다	14 (10.2)	16 (17.4)	29 (20.6)	10 (14.3)	4 (6.9)	8 (11.4)	16 (15.0)	17 (13.6)	3 (9.4)	27 (14.1)	33 (15.3)	28 (13.9)	29 (13.0)	65 (14.1)	52 (14.1)	117 (14.1)
매우 자랑스럽다	3 (2.2)	6 (6.5)	5 (3.5)	3 (4.3)	8 (13.8)	5 (7.1)	4 (3.7)	6 (4.8)	2 (6.3)	5 (2.6)	13 (6)	11 (5.5)	13 (5.8)	31 (6.7)	11 (3.0)	42 (5.0)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4)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은 아래의 [그림 3-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67.5%가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고,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그림 3-8]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이 있는 학생은 7.7%에 불과 했다. 그러나 미정인 학생이 24.8%으로 나타나 재수 및 편입 계획 학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은 <표 3-8>에 나타난 것 처럼 자연대(15.9%), 해양대(15.7%), 경상대(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을 살펴보면, 1학년 13.5%, 2학년 7.4%, 3학년 5.5%, 4학년 4.9% 순으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편입 및 재수 계획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9%가 여학생의 경우 8.6%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재수 및 편입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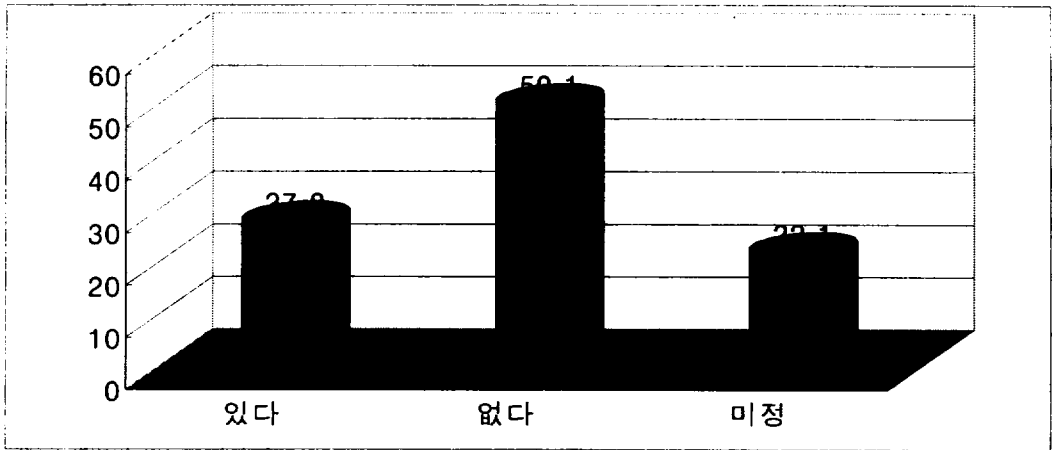
<표 3-8>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9 (6.6)	4 (4.3)	11 (7.8)	2 (2.9)	2 (3.4)	11 (15.7)	17 (15.9)	6 (4.8)	2 (6.3)	26 (13.5)	16 (7.4)	11 (5.5)	11 (4.9)	32 (6.9)	32 (8.6)	64 (7.7)
없다	76 (55.5)	68 (73.9)	95 (67.4)	56 (80.0)	47 (81.0)	45 (64.3)	64 (59.8)	87 (69.6)	24 (75.0)	114 (59.6)	137 (63.4)	145 (72.1)	166 (74.4)	335 (72.5)	227 (61.4)	562 (67.5)
미정	52 (38.0)	20 (21.7)	35 (24.8)	12 (17.1)	9 (15.5)	14 (20.0)	26 (24.3)	32 (25.6)	6 (18.8)	52 (27.1)	63 (29.2)	45 (22.4)	46 (20.6)	95 (20.6)	111 (30.0)	206 (24.8)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5) 휴학 계획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휴학 계획은 아래의 [그림 3-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27.8%가 휴학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없음은 50.1%, 아직 정하지 않은 미정은 22.1%로 나타났다.



[그림 3-9] 휴학계획

단과대학별로는 살펴보면 <표 3-9>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대(48.2%), 해양대(41.4%), 법정대(30.4%)는 휴학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과대(6.3%), 생명대(13.8%), 사범대(17.1%)는 휴학 계획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1.1%), 2학년(27.8%), 3학년(30.8%), 4학년(13.5%)로 나타나 1학년이 휴학 계획이 가장 많고 4학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2.7%가 휴학 계획이 있다고 나타났고, 여학생은 21.6%만 휴학 계획이 있다고 나타나 남학생이 군문제 등으로 인하여 휴학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휴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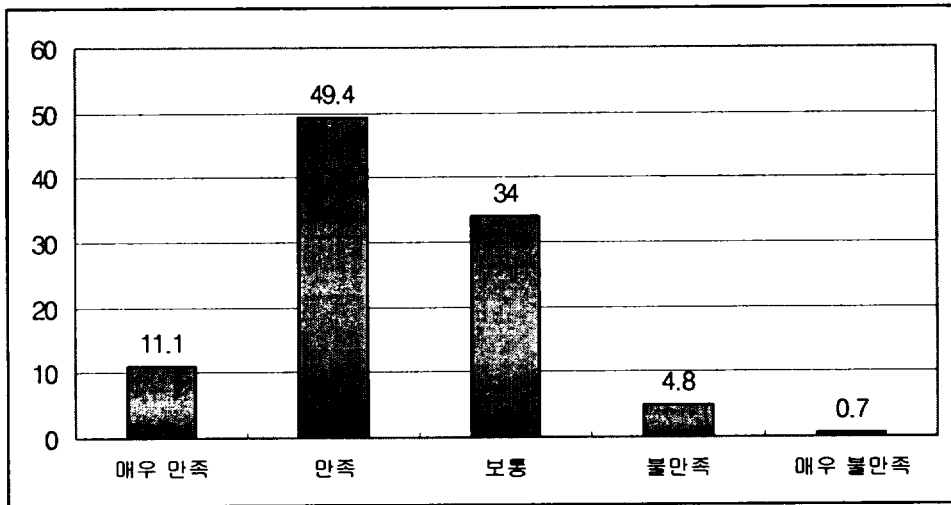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32 (23.4)	28 (30.4)	68 (48.2)	12 (17.1)	8 (13.8)	29 (41.4)	24 (22.4)	28 (22.4)	2 (6.3)	79 (41.1)	60 (27.8)	62 (30.8)	30 (13.5)	151 (32.7)	80 (21.6)	231 (27.8)	
없다	59 (43.1)	42 (45.7)	43 (30.5)	42 (60.0)	44 (75.9)	32 (45.7)	64 (59.8)	64 (51.2)	27 (84.4)	67 (34.9)	99 (45.8)	91 (45.3)	160 (71.7)	223 (48.3)	194 (52.4)	417 (50.1)	
미정	46 (33.6)	22 (23.9)	30 (21.3)	16 (22.9)	6 (10.3)	9 (12.9)	19 (17.8)	33 (26.4)	3 (9.4)	46 (24.0)	57 (26.4)	48 (23.9)	33 (14.8)	88 (19.0)	96 (25.9)	184 (22.1)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3. 대학생활 관련

1)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는 아래의 [그림 3-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60.5%가 학과(학부,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34.0%, 불만족 5.5%로 나타나 학과(학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학과 만족도

단과대학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0>에 나타난 것 처럼 의과대(71.9%), 법정대(69.5%), 경상대(66.7%) 등의 순으로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해양대(51.4%), 공과대(53.6%), 생명대(56.9%)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63.0%), 2학년(61.5%), 3학년(55.2%), 4학년(61.9%)로 나타나 1학년이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가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59.9%가 학과(학부, 전공)에 만족한다고 나타났고, 여학생은 61.1%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조금 더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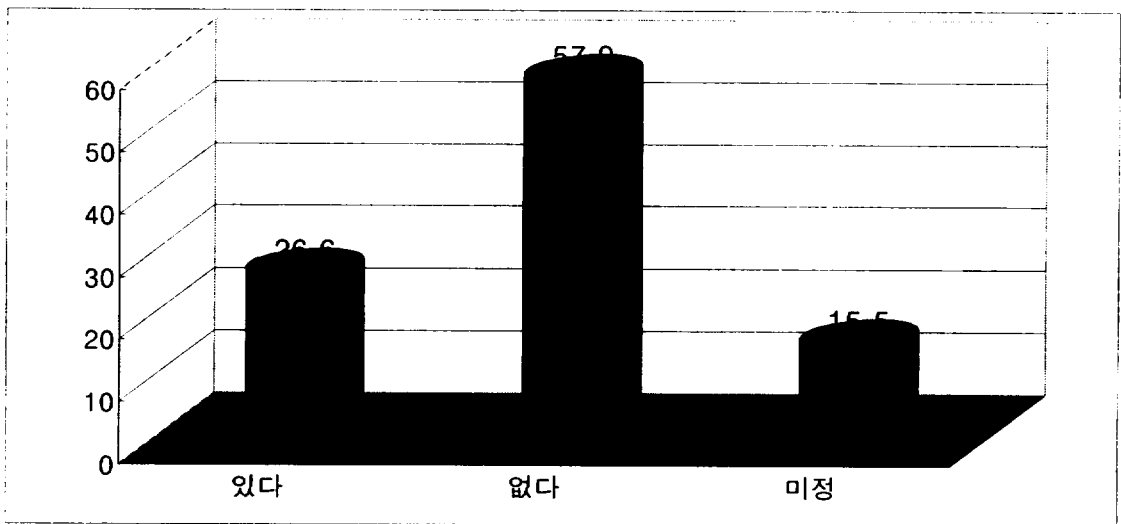
<표 3-10>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 우 만족	11 (8.0)	14 (15.2)	12 (8.5)	9 (12.9)	10 (17.2)	5 (7.1)	12 (11.2)	11 (8.8)	8 (25.0)	14 (7.3)	26 (12)	28 (13.9)	24 (10.8)	56 (12.1)	36 (9.7)	92 (11.1)	
만 족	68 (49.6)	50 (54.3)	82 (58.2)	33 (47.1)	23 (39.7)	31 (44.3)	53 (49.5)	56 (44.8)	15 (46.9)	107 (55.7)	107 (49.5)	83 (41.3)	114 (51.1)	221 (47.8)	190 (51.4)	411 (49.4)	
보 통	51 (37.2)	26 (28.3)	40 (28.4)	24 (34.3)	21 (36.2)	27 (38.6)	39 (36.4)	47 (37.6)	8 (25.0)	63 (32.8)	69 (31.9)	76 (37.8)	75 (33.6)	153 (33.1)	130 (35.1)	283 (34.0)	
불만족	6 (4.4)	2 (2.2)	7 (5)	3 (4.3)	2 (3.4)	7 (10.0)	2 (1.9)	1 (8.0)	1 (3.1)	8 (4.2)	14 (6.5)	12 (6.0)	6 (2.7)	28 (6.1)	12 (3.2)	40 (4.8)	
매 우 불만족	1 (7.0)			1 (1.4)	2 (3.4)		1 (9.0)	1 (8.0)				2 (1.0)	4 (1.8)	4 (9.0)	2 (5.0)	6 (7.0)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2) 복수전공 계획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복수전공 계획은 다음 페이지 [그림 3-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26.6%가 복수전공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없음(57.9%), 미정(15.5%)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복수전공 계획

<표 3-11>은 단과대학별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범대(50.0%), 경상대(34.8%), 자연대(31.8%), 법정대(31.5%), 인문대(31.4%)는 복수전공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과대(3.1%), 생명대(5.2%), 공과대(12.8%), 해양대(15.7%)는 복수전공 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29.7%), 2학년(31.0%), 3학년(26.9%), 4학년(19.3%)으로 나타나 2학년이 복수전공 계획이 가장 많고 4학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19.9%가 복수전공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34.9%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복수전공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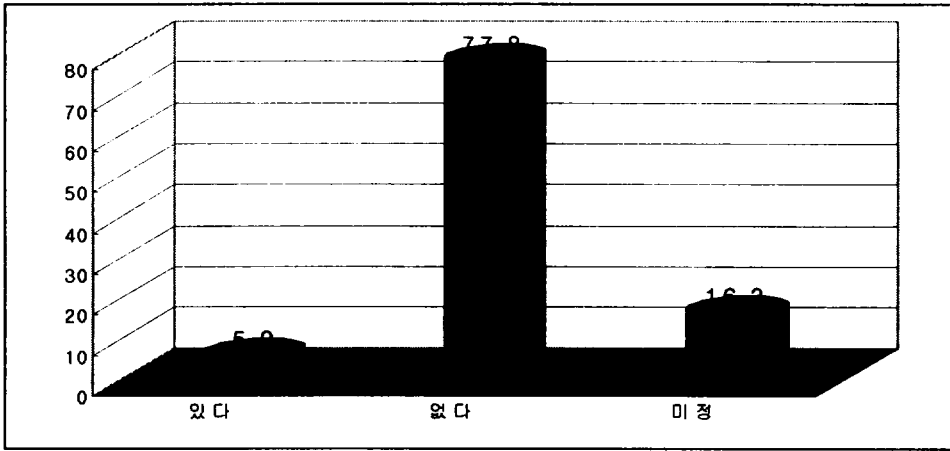
<표 3-11> 복수전공 계획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43 (31.4)	29 (31.5)	49 (34.8)	35 (50.0)	3 (5.2)	11 (15.7)	34 (31.8)	16 (12.8)	1 (3.1)	57 (29.7)	67 (31.0)	54 (26.9)	43 (19.3)	92 (19.9)	129 (34.9)	221 (26.6)
없다	67 (48.9)	54 (58.7)	63 (44.7)	29 (41.4)	44 (75.9)	45 (64.3)	62 (57.9)	88 (70.4)	3 (93.8)	82 (42.7)	109 (50.5)	127 (63.2)	164 (73.5)	304 (65.8)	178 (48.1)	482 (57.9)
미정	27 (19.7)	9 (9.8)	29 (20.6)	6 (8.6)	11 (19.0)	14 (20.0)	11 (10.3)	21 (16.8)	1 (3.1)	53 (27.6)	40 (18.5)	20 (10.0)	16 (7.2)	66 (14.3)	63 (17.0)	129 (15.5)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3)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은 아래의 [그림 3-1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 중 5.9%만이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7.8%, 미정 16.3%로 나타났다.



[그림 3-12]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

단과대학별로는 <표 3-12>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양대(15.7%), 자연대(7.5%), 공과대(6.4%) 등의 순으로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대(1.7%), 의과대(3.1%)은 상대적으로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 9.9%, 2학년 5.6%, 3학년 6.0%, 4학년 2.7%로 나타나 1학년이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1%가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있다고 나타났고, 여학생은 5.7%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많은 것을 <표 3-12>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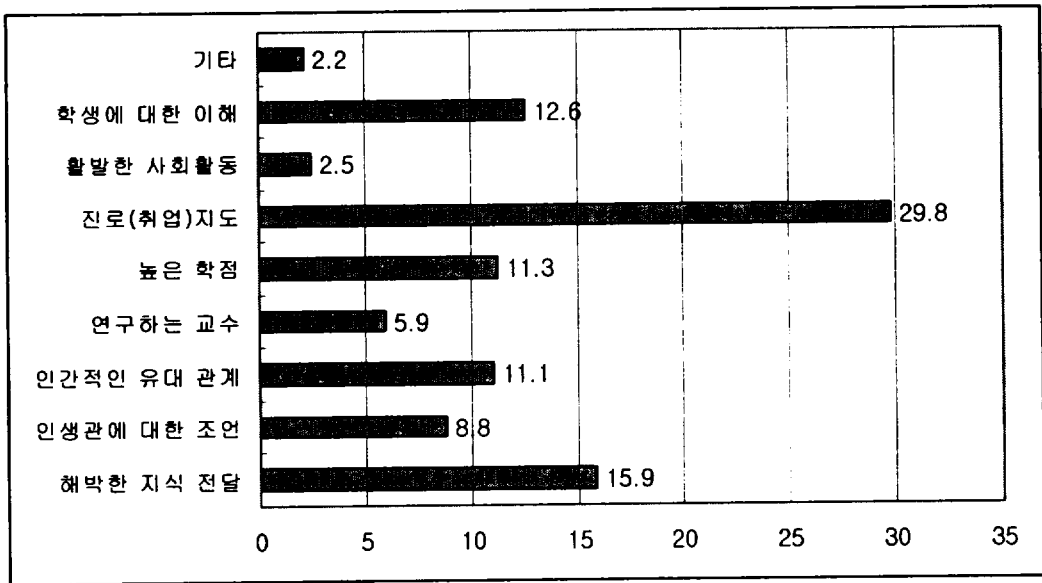
<표 3-12> 학과·전공 영역 바꿀 계획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6 (4.4)	4 (4.3)	7 (5.0)	3 (4.3)	1 (1.7)	11 (15.7)	8 (7.5)	8 (7.5)	1 (3.1)	19 (9.9)	12 (5.6)	12 (6.0)	6 (2.7)	28 (6.1)	21 (5.7)	49 (5.9)
없다	100 (73.0)	84 (91.3)	114 (80.9)	61 (87.1)	48 (82.8)	44 (62.9)	79 (73.8)	89 (73.8)	28 (87.5)	124 (64.6)	168 (77.8)	160 (79.6)	195 (87.4)	360 (77.9)	287 (77.6)	647 (77.8)
미정	31 (22.6)	4 (4.3)	20 (14.2)	6 (8.6)	9 (15.5)	15 (21.4)	20 (18.7)	28 (18.7)	3 (9.4)	49 (25.5)	36 (16.7)	29 (14.4)	22 (9.9)	74 (16.0)	62 (16.8)	136 (16.3)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4)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은 아래의 [그림 3-1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많은 학생(29.8%)이 진로(취업)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박한 지식 전달(15.9%), 학생에 대한 이해(12.6%), 높은 학점(11.3%), 인간적 유대관계(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13 참조>). 생명대(41.4%), 인문대(38.0%), 자연대(36.4%), 사범대(30.0%), 해양대(27.1%), 경상대(27.0%), 공과대(25.6%), 법정대(20.7%)이 진로(취업)지도를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으로 나타났고, 의과대(3.1%)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21.4%), 2학년(31.0%), 3학년(32.3%), 4학년(33.6%) 모두 진로(취업지도)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26.8%가 진로(취업지도)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도 33.5%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취업지도)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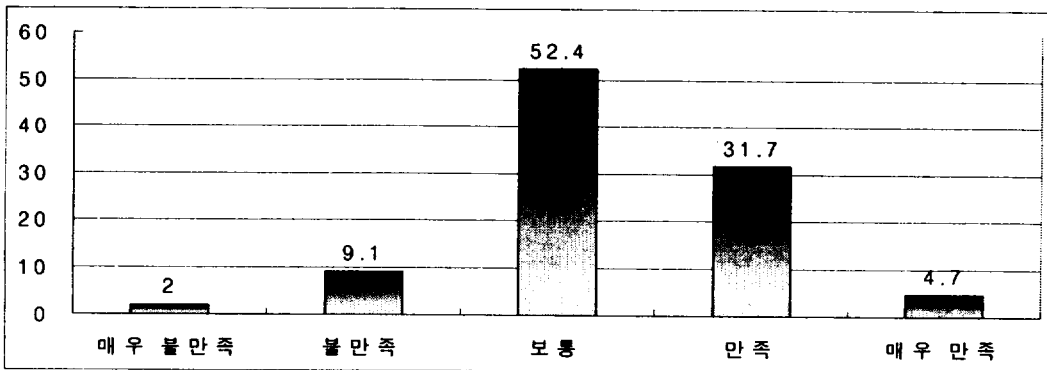
<표 3-13> 대학생 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해박한 지식 전달	22 (16.1)	15 (16.3)	28 (19.9)	9 (12.9)	6 (10.3)	17 (24.3)	11 (10.3)	19 (15.2)	5 (15.6)	41 (21.4)	31 (17.9)	36 (17.9)	24 (10.8)	76 (16.5)	56 (15.1)	132 (15.9)
인생관에 대한 조언	10 (7.3)	12 (13.0)	17 (12.1)	7 (10.0)	4 (6.9)	8 (11.4)	4 (3.7)	8 (6.4)	3 (9.4)	12 (6.6)	17 (7.9)	13 (6.5)	31 (13.9)	45 (9.7)	28 (7.6)	73 (8.8)
인간적인 유대관계	12 (8.8)	14 (15.2)	11 (7.8)	10 (14.3)	9 (15.5)	9 (12.9)	14 (13.1)	9 (7.2)	4 (12.5)	19 (9.9)	24 (11.1)	20 (10.0)	29 (13.0)	56 (12.1)	36 (9.7)	92 (11.1)
연구하는 교수	8 (5.8)	5 (5.4)	6 (4.3)	3 (4.3)		4 (5.7)	10 (9.3)	1 (8.8)	2 (6.3)	11 (5.7)	13 (6.0)	12 (6.0)	13 (5.8)	27 (5.8)	22 (5.9)	49 (5.9)
높은 점	14 (10.2)	10 (10.9)	21 (14.9)	6 (8.6)	7 (12.1)	5 (7.1)	15 (14.0)	1 (10.4)	3 (9.4)	35 (18.2)	29 (13.4)	21 (10.4)	9 (4.0)	51 (11.0)	43 (11.6)	94 (11.3)
진로(취업)지도	52 (38.0)	19 (20.7)	38 (27.0)	21 (30.0)	24 (41.4)	19 (27.1)	39 (36.4)	32 (25.6)	4 (12.5)	41 (21.4)	67 (31.0)	65 (32.3)	75 (33.6)	124 (26.8)	124 (33.5)	248 (29.8)
활발한 사회활동	3 (2.2)	4 (4.3)	3 (2.1)	1 (1.4)	2 (3.4)	1 (1.4)	5 (4.7)	2 (1.6)		2 (1.0)	9 (4.2)	4 (2.0)	6 (2.7)	12 (2.6)	9 (2.4)	21 (2.5)
학생에 대한 이해	15 (10.9)	10 (10.9)	13 (9.2)	9 (12.9)	5 (8.6)	7 (10.0)	8 (7.5)	30 (24.0)	8 (25.0)	29 (15.1)	26 (12.0)	22 (10.9)	28 (12.6)	61 (13.2)	44 (11.9)	105 (12.6)
기타	1 (0.7)	3 (3.3)	4 (2.8)	4 (5.7)	1 (1.7)		1 (0.9)	1 (0.8)	3 (9.4)	2 (1.0)		8 (4.0)	8 (3.6)	10 (2.2)	8 (2.2)	18 (2.2)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5)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의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36.4%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은 11.1%로 나타났다.



[그림 3-14]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

<표 3-14>을 살펴보면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대(47.1%), 법정대(46.7%), 생명대(43.1%), 사범대(41.5%), 의과대(34.4%), 공과대(33.6%), 자연대(33.6%), 인문대(31.4%) 순으로 나타나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해양대가 가장 높았고, 경상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 31.7%, 2학년 40.7%, 3학년 34.9%, 4학년 37.7%로 나타나 2학년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1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8.3%, 여학생은 33.5%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현재 수업 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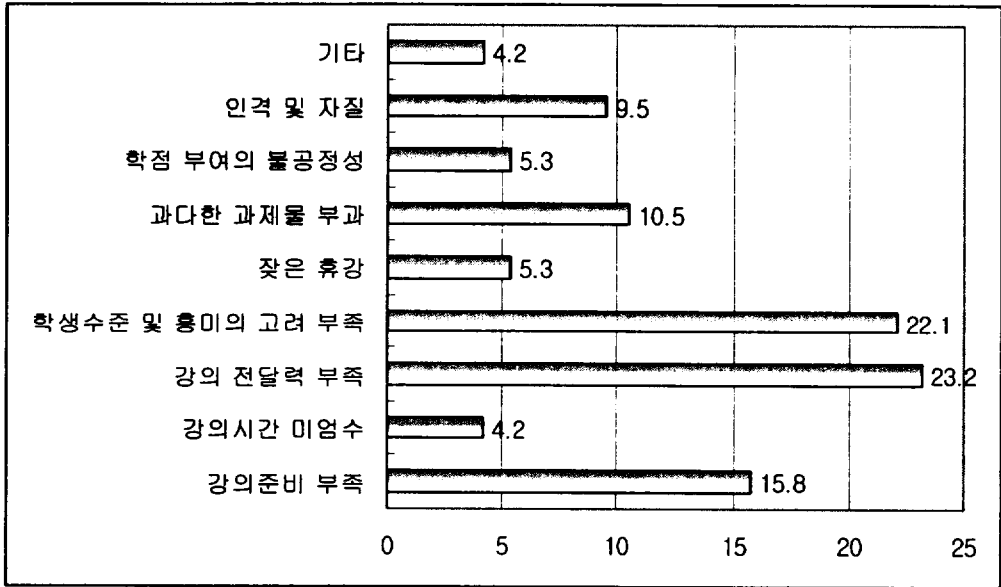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우불만족	3 (2.2)	4 (4.3)	4 (2.8)	2 (2.9)			1 (0.9)	3 (2.4)		3 (1.6)	3 (1.4)	6 (3.0)	5 (2.2)	15 (3.2)	2 (0.5)	17 (2.0)
불만족	12 (8.8)	5 (5.4)	16 (11.3)	4 (5.7)	3 (5.2)	7 (10.0)	4 (3.7)	24 (19.2)	1 (3.1)	18 (9.4)	17 (7.9)	22 (10.9)	19 (8.5)	49 (10.6)	27 (7.3)	76 (9.1)
보통	79 (57.7)	40 (43.5)	80 (56.7)	35 (50.0)	30 (51.7)	30 (42.9)	66 (61.7)	56 (44.8)	20 (62.5)	110 (57.3)	108 (50.0)	103 (51.2)	115 (51.6)	221 (47.8)	215 (58.1)	436 (52.4)
만족	42 (30.7)	37 (40.2)	39 (27.7)	23 (32.9)	19 (32.8)	29 (41.4)	33 (30.8)	34 (27.2)	8 (25.0)	55 (28.6)	78 (36.1)	57 (28.4)	74 (33.2)	151 (32.7)	113 (30.5)	264 (31.7)
매우만족	1 (0.7)	6 (6.5)	2 (1.4)	6 (8.6)	6 (10.3)	4 (5.7)	3 (2.8)	8 (6.4)	3 (9.4)	6 (3.1)	10 (4.6)	13 (6.5)	10 (4.5)	26 (5.6)	13 (3.5)	39 (4.7)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6)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5번의 불만족 응답자만)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현재 수업중인 교수님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아래의 [그림 3-1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강의 전달력 부족

(23.2%),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22.1%), 강의준비 부족(15.8%) 등의 순으로 불만족 이유가 나타났다.



[그림 3-15]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양대(42.8%), 인문대(26.7%)는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으나, 사범대(33.3%), 공과대(29.6%), 경상대(22.7%), 의과대(100.0%)는 강의 전달력 부족을 법정대(33.3%)는 강의준비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들었다. 한편 자연대(40.0%)는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 강의준비 부족의 두 가지로 나타났고, 생명대(33.3%)는 강의준비 부족,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 인격 및 자질 세 가지로 나타났다.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0.9%)과 4학년(26.1%)은 강의 전달력 부족, 2학년(40.9%)과 3학년(20.7%)은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이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강의 전달력 부족(26.6%)이, 여학생의 경우 강의준비 부족(19.4%)이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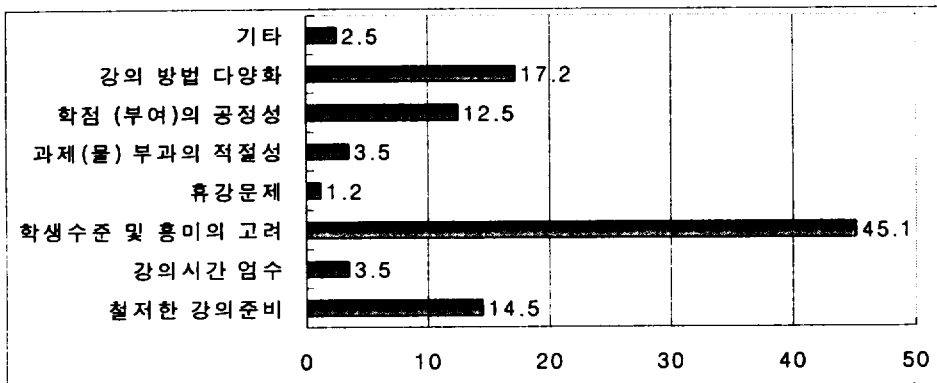
<표 3-15>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강의준비 부족	2 (13.3)	3 (33.3)	3 (13.6)	1 (16.7)	1 (33.3)		2 (40.0)	3 (11.1)		2 (9.0)	3 (14.3)	5 (17.2)	5 (21.7)	9 (14.0)	6 (19.4)	15 (15.8)
강의시간 미엄수			2 (9.0)	1 (16.7)			1 (20.0)			1 (4.5)	1 (4.8)		2 (8.7)	2 (3.1)	2 (6.0)	4 (4.2)
강의전달력 부족	2 (13.3)	2 (22.2)	5 (22.7)	2 (33.3)		2 (28.6)		8 (29.6)	1 (100.0)	9 (40.9)	2 (9.5)	5 (17.2)	6 (26.1)	17 (26.6)	5 (6.1)	22 (23.2)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	4 (26.7)	1 (11.1)	4 (18.1)		1 (33.3)	3 (42.8)	2 (40.0)	6 (22.2)		1 (4.5)	9 (40.9)	6 (20.7)	5 (21.7)	16 (25.0)	5 (6.1)	21 (22.1)
잘못된 휴강			1 (4.5)			1 (14.3)		3 (11.1)		2 (9.0)		2 (6.9)	1 (4.3)	4 (6.3)	1 (3.2)	5 (5.3)
과다한 과제물 부과	2 (13.3)	1 (11.1)	3 (13.6)	1 (16.7)				3 (11.1)		3 (13.6)	2 (9.0)	4 (13.8)	1 (4.3)	6 (13.3)	4 (16.1)	10 (10.5)
학점부여의 불공정성	1 (6.7)		1 (4.5)			1 (14.3)		2 (22.2)		2 (9.0)	1 (4.5)	1 (3.4)	1 (4.3)	2 (9.4)	3 (3.2)	5 (5.3)
인격 및 자질	3 (20.0)		2 (9.0)	1 (16.7)	1 (33.3)			2 (22.2)		1 (4.5)	3 (13.6)	3 (10.3)	2 (8.7)	5 (3.1)	4 (12.9)	9 (9.5)
기타	1 (6.7)	2 (22.2)	1 (4.5)							1 (4.5)		3 (10.3)		3 (3.8)	1 (3.2)	4 (4.2)
계	15 (100)	9 (100)	22 (100)	6 (100)	3 (100)	7 (100)	5 (100)	27 (100)	1 (100)	22 (100)	21 (100)	29 (100)	23 (100)	64 (100)	31 (100)	95 (100)

7)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2006학년도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아래의 [그림 3-1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45.1%), 강의방법 다양화(17.2%), 철저한 강의준비(14.5%), 학점(부여)의 공정성(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16> 처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과대(57.6%), 경상대(49.6%), 자연대(48.6%), 생명대(46.6%), 법정대(41.3%), 인문대(40.9%), 의과대(40.6%), 해양대(40.0%)에서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을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고, 사범대만 철저한 강의준비(28.6%)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51.0%), 2학년(38.9%), 3학년(47.3%), 4학년(43.9%) 모두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47.4%)과 여학생(42.2%) 모두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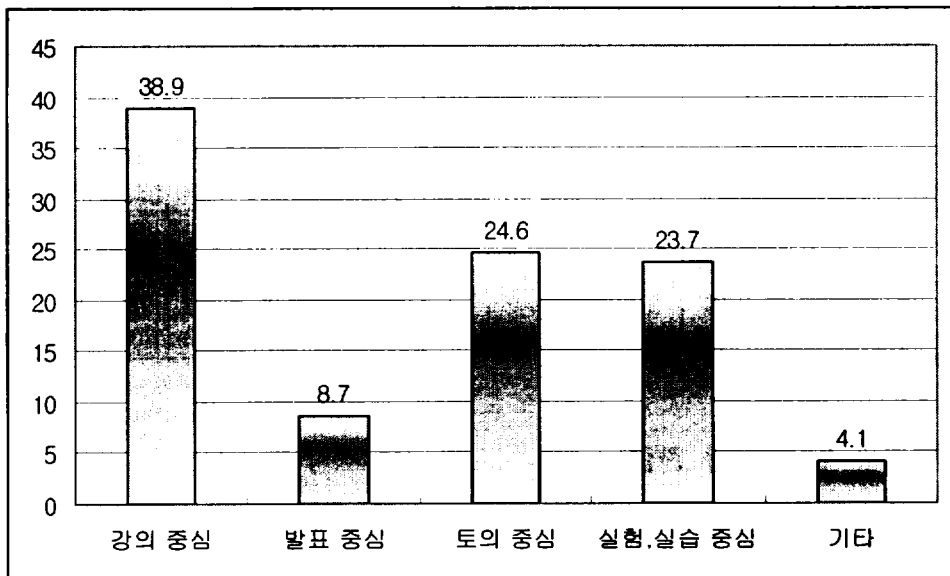
<표 3-16>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철저한 강의준비	17 (12.4)	18 (19.6)	17 (12.1)	20 (28.6)	2 (3.4)	10 (14.3)	15 (14.0)	14 (11.2)	8 (25.0)	17 (8.9)	40 (18.5)	30 (14.9)	34 (15.2)	60 (13.0)	61 (16.5)	121 (14.5)
강의시간 업 수	5 (3.6)	3 (3.3)	6 (4.3)	1 (1.4)		3 (4.3)	6 (5.6)	4 (3.2)	1 (3.1)	6 (3.1)	10 (4.6)	3 (1.5)	10 (4.5)	16 (3.5)	13 (3.5)	29 (3.4)
학생수준 흥미의 고려	56 (40.9)	38 (41.3)	70 (49.6)	19 (27.1)	27 (46.6)	28 (40.0)	52 (48.6)	72 (57.6)	13 (40.6)	98 (51.0)	84 (38.9)	95 (47.3)	98 (43.9)	219 (47.4)	156 (42.2)	375 (45.1)
휴강 문 제	2 (1.5)	1 (1.1)	1 (0.7)	1 (1.4)	1 (1.7)	3 (4.3)		1 (0.8)		2 (1.0)	3 (1.4)	2 (1.0)	3 (1.3)	8 (1.7)	2 (0.5)	10 (1.2)
과제(물) 부적 절	5 (3.6)	2 (2.2)	4 (2.8)	5 (7.1)		4 (5.7)	3 (2.8)	5 (4.0)	1 (3.1)	9 (4.7)	7 (3.2)	8 (4.0)	5 (2.2)	20 (4.3)	9 (2.4)	29 (3.5)
학점(부여) 공정 성	22 (16.1)	11 (12.0)	23 (16.3)	6 (8.6)	9 (15.5)	8 (11.4)	12 (11.2)	9 (7.2)	4 (12.5)	27 (14.1)	28 (13.0)	28 (13.9)	21 (9.4)	50 (10.8)	54 (14.6)	104 (12.5)
강의방법 다 양 화	29 (21.2)	15 (16.3)	17 (12.1)	15 (21.4)	16 (27.6)	10 (14.3)	19 (17.8)	17 (13.6)	5 (15.6)	27 (14.1)	39 (18.1)	28 (13.9)	49 (22.0)	79 (17.1)	64 (17.3)	143 (17.2)
기 타	1 (0.7)	4 (4.3)	3 (2.1)	3 (4.3)	3 (5.2)	4 (5.7)		3 (2.4)		6 (3.1)	5 (2.3)	7 (3.5)	3 (1.3)	10 (2.2)	11 (3.0)	21 (2.5)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8) 원하는 강의형태

2006학년도 재학생들이 원하는 강의형태는 아래의 [그림 3-1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강의 중심(38.9%), 토의 중심(24.6%), 실험·실습 중심(23.7%), 발표 중심(8.7%), 기타(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원하는 강의형태

재학생들이 원하는 강의형태는 <표 3-17>에 나타난 것 처럼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의과대(68.8%), 자연대(50.5%), 법정대(44.6%), 사범대(44.3%), 경상대(41.8%), 인문대(35.8%)은 강의 중심 강의로 나타났다. 생명대(46.6%), 공과대(38.4%)는 실험·실습 중심의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대는 강의 중심 강의, 토의 중심 강의, 실험·실습 중심 강이가 28.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원하는 강의형태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0.6%), 2학년(45.8%), 3학년(35.3%), 4학년(34.1%) 모두 강의 중심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원하는 강의형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35.1%)과 여학생(43.8%) 모두 강의 중심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원하는 강의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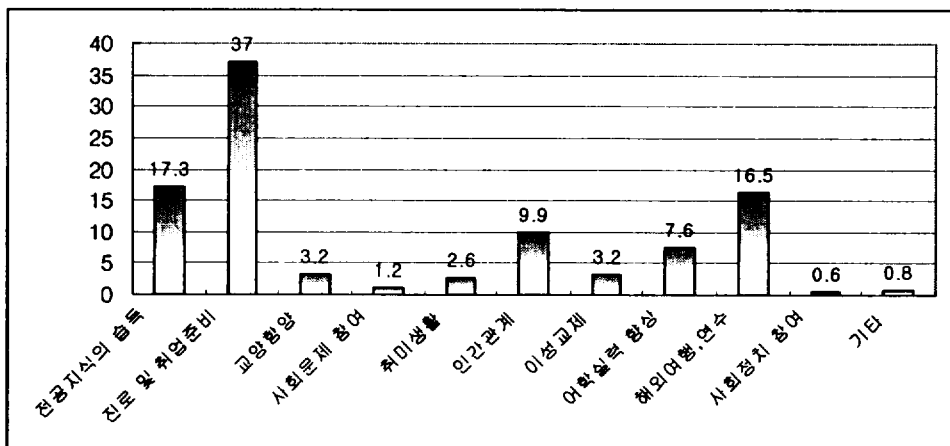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강 의 중 심	49 (35.8)	41 (44.6)	59 (41.8)	31 (44.3)	18 (31.0)	20 (28.6)	54 (50.5)	30 (24.0)	22 (68.8)	78 (40.6)	99 (45.8)	71 (35.3)	76 (34.1)	162 (35.1)	162 (43.8)	324 (38.9)
발 표 중 심	11 (8.0)	12 (13.0)	19 (13.5)	5 (7.1)	3 (5.2)	10 (14.3)	6 (5.6)	5 (4.0)	1 (3.1)	14 (7.3)	15 (6.9)	19 (9.5)	24 (10.8)	39 (8.4)	33 (8.9)	72 (8.7)
토 의 중 심	38 (27.7)	28 (30.4)	30 (21.3)	19 (27.1)	10 (17.2)	20 (28.6)	22 (20.6)	35 (28.0)	3 (9.4)	45 (23.4)	46 (21.3)	57 (28.4)	57 (25.6)	123 (26.6)	82 (22.2)	205 (24.6)
실험, 실 습 중 심	34 (24.8)	7 (7.6)	32 (22.7)	7 (10.0)	27 (46.6)	20 (28.6)	20 (18.7)	48 (38.4)	2 (6.3)	52 (27.1)	52 (24.1)	45 (22.4)	48 (21.5)	123 (26.6)	74 (20.0)	197 (23.7)
기 타	5 (3.6)	4 (4.3)	1 (0.7)	8 (11.4)			5 (4.7)	7 (5.6)	4 (12.5)	3 (1.6)	4 (1.9)	9 (4.5)	18 (8.1)	15 (3.2)	19 (5.1)	34 (4.1)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4. 개인생활관 및 가치관 관련

1)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006학년도 재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림 3-1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진로 및 취업준비(37.0%), 전공지식의 습득(17.3%), 해외여행·연수(16.5%), 인간관계(9.9%), 어학능력 향상(7.6%), 이공교재(3.2%), 교양향상(3.2%), 사회문제 참여(2.6%), 취미생활(1.2%), 사회장차 참여(0.6%), 기타(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006학년도 재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살펴보면 <표 3-18>에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범대(45.7%), 인문대(42.3%), 경상대(38.3%), 공과대(37.6%), 법정대(35.9%), 해양대(35.7%), 자연대(34.6%), 생명대(32.8%) 모두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진로 및 취업준비라고 하였고, 의과대만이 해외여행·연수(25.0%)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31.8%), 2학년(38.0%), 3학년(41.3%), 4학년(36.8%) 모두 진로 및 취업준비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39.4%)과 여학생(34.1%) 모두 비슷하게 진로 및 취업준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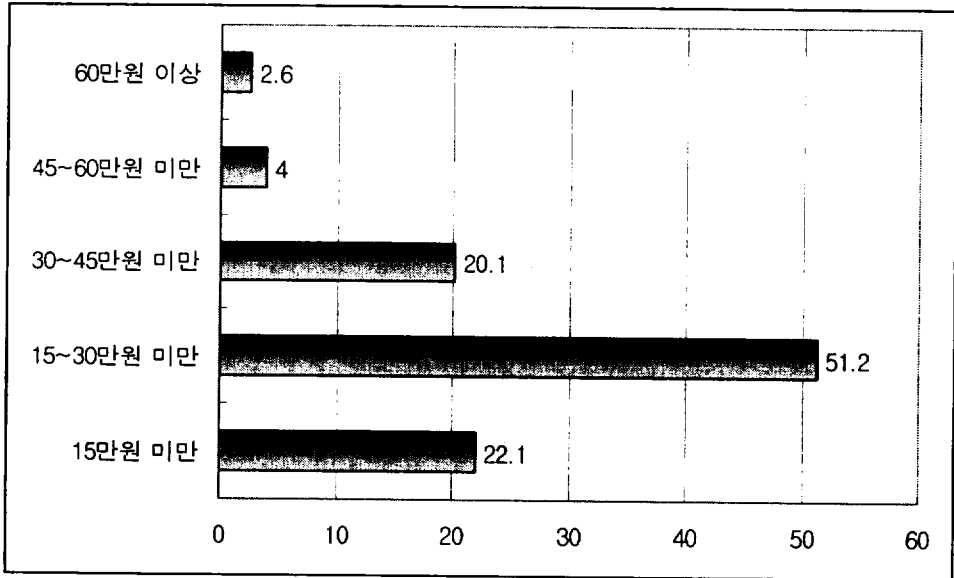
<표 3-18>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전공지식의 습득	14 (10.2)	19 (20.7)	15 (10.6)	11 (15.7)	12 (20.7)	16 (22.9)	24 (22.4)	27 (21.6)	6 (18.8)	31 (16.1)	43 (19.9)	38 (18.9)	32 (14.3)	78 (16.9)	66 (17.8)	144 (17.3)
진로 및 취업준비	58 (42.3)	33 (35.9)	54 (38.3)	32 (45.7)	19 (32.8)	25 (35.7)	37 (34.6)	47 (37.6)	3 (9.4)	61 (31.8)	82 (38.0)	83 (41.3)	82 (36.8)	182 (39.4)	126 (34.1)	308 (37.0)
교 양 함 양	4 (2.9)	3 (3.3)	5 (3.5)	1 (1.4)	2 (3.4)	3 (4.3)	3 (2.8)	3 (2.4)	3 (9.4)	5 (2.6)	9 (4.2)	7 (3.5)	6 (2.7)	17 (3.7)	10 (2.7)	27 (3.2)
사회문제 참여		4 (4.3)	2 (1.4)	2 (2.9)	1 (1.7)		1 (0.9)			2 (1.0)	2 (0.9)	4 (2.0)	2 (0.9)	7 (1.5)	3 (0.8)	10 (1.2)
취미생활 (동아리 활동 포함)	1 (0.7)	2 (2.2)	3 (2.1)	2 (2.9)	3 (5.2)	2 (3.4)	2 (1.9)	6 (4.8)	1 (3.1)	10 (5.2)	5 (2.3)	4 (2.0)	3 (1.3)	16 (3.5)	6 (1.6)	22 (2.6)
인간관계	19 (13.9)	4 (4.3)	18 (12.8)	6 (8.6)	4 (6.9)	7 (1.7)	7 (6.5)	1 (8.8)	6 (18.8)	28 (14.6)	16 (7.4)	11 (5.5)	27 (12.1)	48 (10.4)	34 (9.2)	82 (9.9)
이성교제	1 (0.7)	1 (1.1)	4 (2.8)	1 (1.4)	4 (6.9)	3 (5.2)	7 (6.5)	3 (2.4)	3 (9.4)	12 (6.3)	3 (1.4)	6 (3.0)	6 (2.7)	22 (4.8)	59 (1.4)	27 (3.2)
어학실력 향상	20 (14.6)	5 (5.4)	10 (7.1)	1 (1.4)	4 (6.9)	9 (12.9)	8 (7.5)	6 (4.8)		19 (9.9)	14 (6.5)	16 (8.0)	14 (6.3)	31 (6.7)	32 (8.6)	63 (7.6)
해외여행 연 수	19 (13.9)	19 (20.7)	29 (20.6)	14 (20.0)	9 (15.5)	3 (4.3)	17 (15.9)	19 (15.2)	8 (25.0)	22 (11.5)	38 (17.6)	28 (13.9)	49 (22.0)	52 (11.3)	85 (23.0)	137 (16.5)
사회정치 참여		1 (1.1)	1 (0.7)			1 (1.4)		1 (0.8)	1 (3.1)	2 (1.0)	3 (1.4)			4 (0.9)	1 (0.3)	5 (0.6)
기 타	1 (0.7)	1 (1.1)				1 (1.4)	1 (0.9)	2 (1.6)	1 (3.1)		1 (0.5)	4 (2.0)	2 (0.9)	5 (1.1)	2 (0.5)	7 (0.8)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2) 한 달 용돈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아래의 [그림 3-1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15만원이상~30만원 미만(51.2%), 15만원 미만(22.1%), 30만원이상~45만원 미만(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한 달 용돈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한 달 용돈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범대(67.1%), 인문대(54.7%), 해양대(54.3%), 법정대(52.2%), 공과대(50.4%), 경상대(48.2%), 의과대(46.9%), 자연대(44.9%), 생명대(41.4%)의 순으로 15만원이상~30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한 달 용돈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50.0%), 2학년(49.1%), 3학년(51.7%), 4학년(53.8%) 모두 15만원이상~30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한 달 용돈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50.6%)과 여학생(51.9%) 모두 비슷하게 15만원이상~30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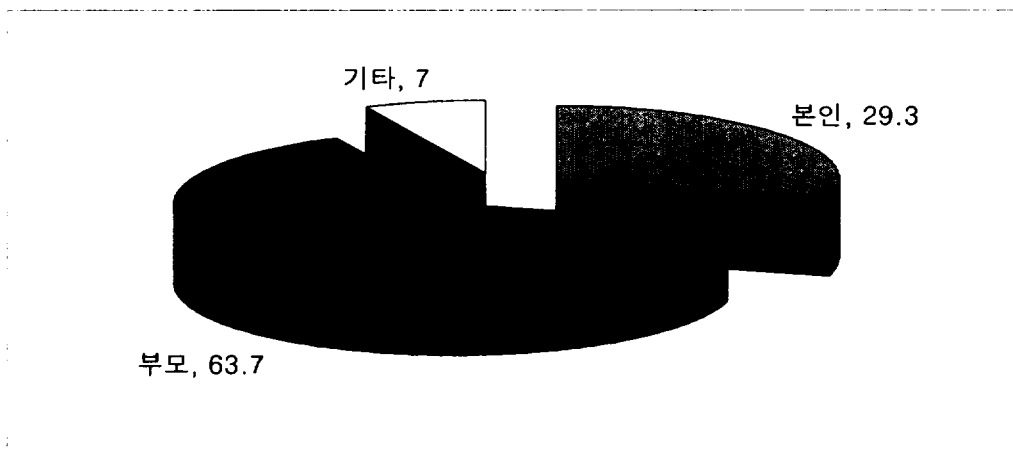
<표 3-19> 한 달 용돈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15 만 원 미 만	24 (17.5)	22 (23.9)	31 (22.0)	8 (11.4)	15 (25.9)	10 (14.3)	30 (28.0)	35 (28.0)	9 (28.1)	55 (28.6)	56 (25.9)	37 (18.4)	36 (16.1)	94 (20.3)	90 (24.3)	184 (22.1)
15~30만원 미 만	75 (54.7)	48 (52.2)	68 (48.2)	47 (67.1)	24 (41.4)	38 (54.3)	48 (44.9)	63 (50.4)	15 (46.9)	96 (50.0)	106 (49.1)	104 (51.7)	120 (23.8)	234 (50.6)	192 (51.9)	426 (51.2)
30~45만원 미 만	29 (21.2)	14 (15.2)	31 (22.0)	11 (15.7)	12 (20.7)	19 (27.1)	22 (20.6)	25 (20.0)	4 (12.5)	34 (17.7)	41 (19.0)	46 (22.9)	46 (20.6)	98 (21.2)	69 (18.6)	167 (20.1)
45~60만원 미 만	7 (5.1)	4 (4.3)	2 (1.4)	4 (5.7)	5 (8.6)	3 (4.3)	5 (4.7)	1 (0.8)	2 (6.3)	6 (3.1)	5 (2.3)	8 (4.0)	14 (6.3)	19 (4.1)	14 (3.8)	33 (4.0)
60 만 원 이 상	2 (1.5)	4 (4.3)	9 (6.4)		2 (3.4)		2 (1.9)	1 (0.8)	2 (6.3)	1 (0.5)	8 (3.7)	6 (3.0)	7 (3.1)	17 (3.7)	5 (1.4)	22 (2.6)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3) 용돈 출처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용돈 출처는 아래의 [그림 3-2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용돈 출처는 부모(63.7%), 본인(29.3%), 기타(7.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용돈 출처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한 달 용돈 출처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20 참조>). 의과대(90.6%), 경상대(68.8%), 해양대(67.1%), 공과대(66.4%), 생명대(60.3%), 자연대(59.8%), 법정대(59.8%), 사범대(58.6%), 인문대(57.7%) 모두 부모님께 용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생이 가장 부모에게 용돈 의존도가 높고, 인문대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용돈 출처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69.3%), 2학년(62.0%), 3학년(59.2%), 4학년(64.6%) 모두 부모에게 용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64.7%)과 여학생(62.4%) 모두 비슷하게 부모에게 용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용돈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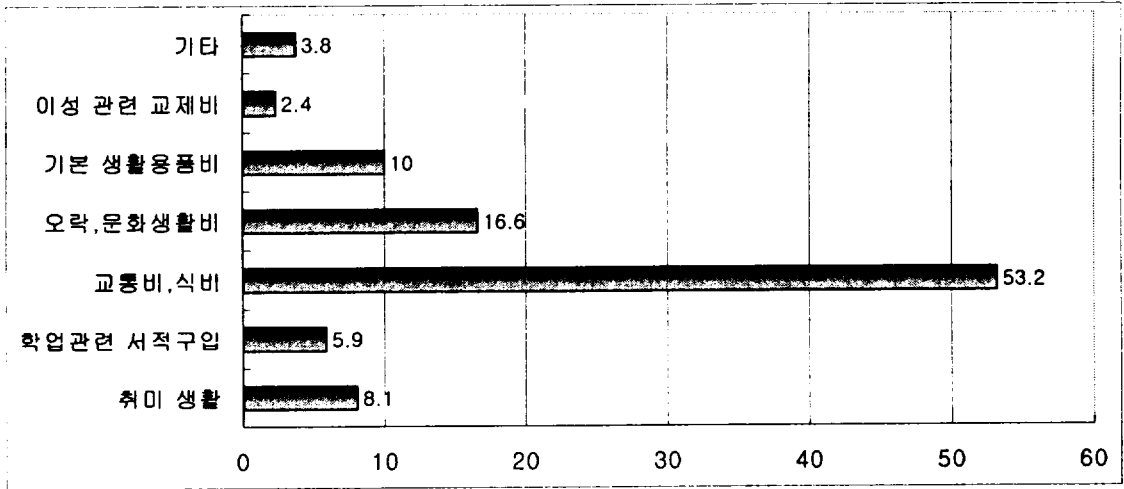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본인	51 (37.2)	29 (31.5)	33 (23.4)	26 (37.1)	17 (29.3)	21 (30.0)	34 (31.8)	32 (25.6)	1 (3.1)	51 (26.6)	59 (27.3)	66 (32.8)	68 (30.5)	131 (28.4)	113 (30.5)	244 (29.3)
부모	79 (57.7)	55 (59.8)	97 (68.8)	41 (58.6)	35 (60.3)	47 (67.1)	64 (59.8)	83 (66.4)	29 (90.6)	133 (69.3)	134 (62.0)	119 (59.2)	144 (64.6)	299 (64.7)	231 (62.4)	530 (63.7)
기타	7 (5.1)	8 (8.7)	11 (7.8)	3 (4.3)	6 (10.3)	2 (2.9)	9 (8.4)	10 (8.0)	2 (6.3)	8 (4.2)	23 (10.6)	16 (8.0)	11 (4.9)	32 (6.9)	26 (7.0)	58 (7.0)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4) 용돈 주사용처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용돈 주사용처는 아래의 [그림 3-2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통비 및 식비(53.2%), 오락 및 문화생활비(16.6%), 기본 생활용품비(10.0%), 취미생활(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용돈 주사용처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2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과대(78.1), 자연대(61.7%), 사범대(60.0%), 법정대(54.3%), 경상대(49.6%), 인문대(48.9%), 공과대(46.4%), 해양대(44.3%) 순으로 교통비 및 식비로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그림 3-21] 용돈 주 사용처

재학생들의 용돈 주사용처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8.4%), 2학년(55.6%), 3학년(60.7%), 4학년(48.4%) 모두 교통비 및 식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49.8%)과 여학생(57.6%) 모두 교통비 및 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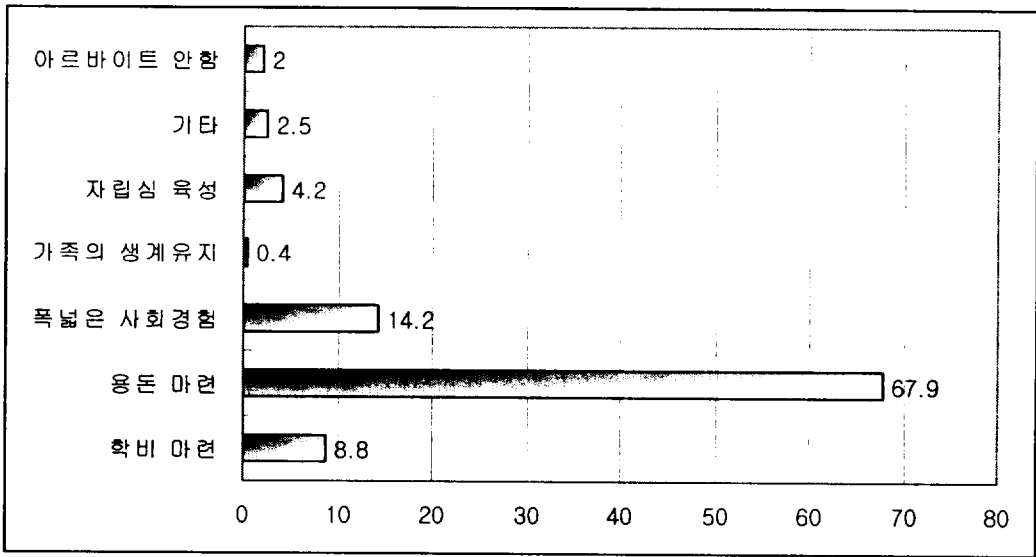
<표 3-21> 용돈 주사용처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취미 생활	9 (6.6)	5 (5.4)	13 (9.2)	2 (2.9)	5 (8.6)	8 (11.4)	7 (6.5)	18 (14.4)		19 (9.9)	20 (9.3)	13 (6.5)	15 (6.7)	44 (9.5)	23 (8.1)	67 (8.1)	
학업관련 서적구입	7 (5.1)	6 (6.5)	12 (8.5)	9 (12.9)	2 (3.4)	4 (5.7)	2 (1.9)	5 (4.0)	2 (6.3)	13 (6.8)	10 (4.6)	5 (2.5)	21 (9.4)	26 (5.6)	23 (5.9)	49 (5.9)	
교통비 및 식비	67 (48.9)	50 (54.3)	70 (49.6)	42 (60.0)	34 (58.6)	31 (44.3)	66 (61.7)	58 (46.4)	25 (78.1)	93 (48.4)	120 (55.6)	122 (60.7)	108 (48.4)	230 (49.8)	213 (57.6)	443 (53.2)	
오락 및 문화생활비	21 (15.3)	18 (19.6)	22 (15.6)	11 (15.7)	12 (20.7)	16 (22.9)	12 (11.2)	23 (18.4)	3 (9.4)	44 (20.9)	26 (12.0)	29 (14.4)	39 (17.5)	90 (19.5)	48 (13.0)	138 (16.6)	
기본 생활 용품비	23 (16.8)	4 (4.3)	15 (10.6)	4 (5.7)	5 (8.6)	6 (8.6)	8 (7.5)	16 (12.8)	2 (6.3)	13 (6.8)	24 (11.1)	16 (8.0)	30 (13.5)	41 (8.9)	42 (11.4)	83 (10.0)	
이성관련 교제비	4 (2.9)	1 (1.1)	5 (3.5)			3 (4.3)	4 (3.7)	3 (2.4)		5 (2.6)	7 (3.2)	5 (2.5)	3 (1.3)	15 (3.2)	5 (1.4)	20 (2.4)	
기타	6 (4.4)	8 (8.7)	4 (2.8)	2 (2.9)		2 (2.9)	8 (7.5)	2 (1.6)		5 (2.6)	9 (4.2)	11 (5.5)	7 (3.1)	16 (3.5)	16 (4.3)	32 (3.8)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5) 아르바이트 목적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은 아래의 [그림 3-2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용돈 마련(67.9%), 폭넓은 사회경험(14.2%), 학비 마련(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아르바이트 목적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범대(78.6%), 의과대(75.0%), 인문대(73.7%), 자연대(72.0%), 법정대(68.5%), 공과대(66.4%), 경상대(63.8%), 해양대(61.4%), 생명대(50.0%) 순으로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나타났다(<표 3-22 >참조).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1학년(67.7%), 2학년(69.9%), 3학년(63.2%), 4학년(70.4%) 모두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66.5%)과 여학생(69.7%) 모두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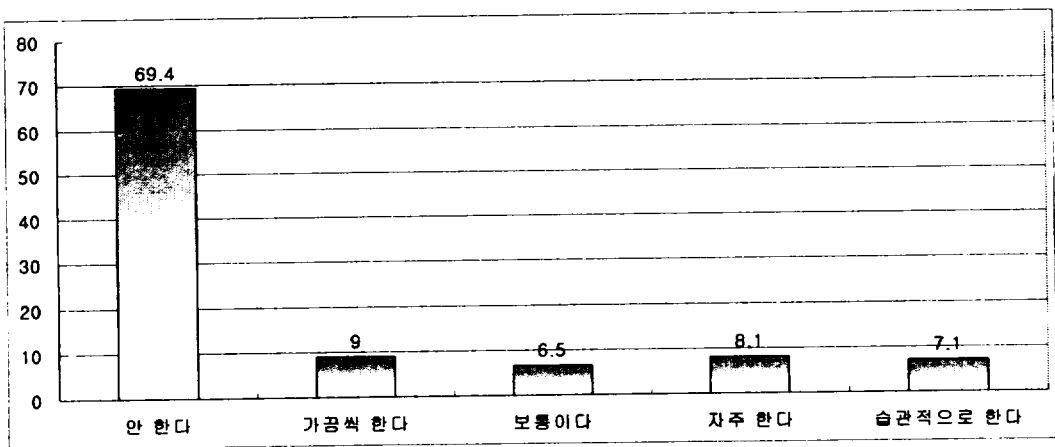
<표 3-22> 아르바이트 목적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학비	8	4	8	6	11	10	15	11		22	22	14	15	42	31	73
마련	(5.8)	(4.3)	(5.7)	(8.6)	(19.0)	(14.3)	(14.0)	(8.8)		(11.5)	(10.2)	(7.0)	(6.7)	(9.1)	(8.4)	(8.8)
용돈	101	63	90	55	29	43	77	83	24	130	151	127	157	307	258	565
마련	(73.7)	(68.5)	(63.8)	(78.6)	(50.0)	(61.4)	(72.0)	(66.4)	(75.0)	(67.7)	(69.9)	(63.2)	(70.4)	(66.5)	(69.7)	(67.9)
폭넓은	16	11	30	6	10	10	10	18	7	34	24	28	32	70	48	118
사회경험	(11.7)	(12.0)	(21.3)	(8.6)	(17.2)	(14.3)	(9.3)	(14.4)	(21.9)	(17.7)	(11.1)	(13.9)	(14.3)	(15.2)	(13.0)	(14.2)
가족의						2		1				3		2	1	3
생계유지						(2.9)		(0.8)				(1.5)		(0.4)	(0.3)	(0.4)
자립심	6	6	4	3	5	4		7		3	7	14	11	19	16	35
성숙	(4.4)	(6.5)	(2.8)	(4.3)	(8.6)	(5.7)		(5.6)		(1.6)	(3.2)	(7.0)	(4.9)	(4.1)	(4.3)	(4.2)
기타	4	4	5		1	1	3	2	1	2	9	7	3	10	11	21
	(2.9)	(4.3)	(3.5)		(1.7)	(1.4)	(2.8)	(1.6)	(3.1)	(1.0)	(4.2)	(3.5)	(1.3)	(2.2)	(3.0)	(2.5)
아르바이트	2	4	4		2		2	3		1	3	8	5	12	5	17
안함	(1.5)	(4.3)	(2.8)		(3.4)		(1.9)	(2.4)		(0.5)	(1.4)	(4.0)	(2.2)	(2.6)	(1.4)	(2.0)
계	137	92	141	70	58	70	107	125	32	192	216	201	223	462	370	83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 흡연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흡연여부는 아래의 [그림 3-2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안한다가 69.4%로 가장 많았고, 가끔씩 한다(9.0%), 자주한다(8.1%), 습관적으로 한다(7.1%), 보통이다(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흡연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흡연여부를 <표 3-23>에서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범대(88.6%), 의과대(84.4%), 인문대(76.6%), 자연대(76.6%), 법정대(73.9%), 생명대(69.0%), 공과대(52.0%), 경상대(63.8%), 해양대(45.7%) 순으로 흡연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흡연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1학년(67.2%), 2학년(71.3%), 3학년(71.6%), 4학년(67.3%) 모두 흡연을 안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흡연을 안하는 학생이 남학생(50.2%) 보다 여학생(93.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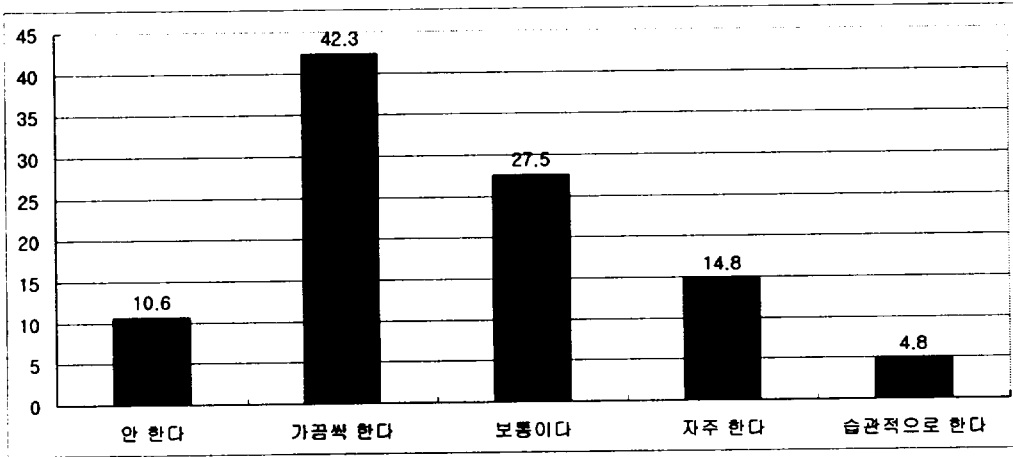
<표 3-23> 흡연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안 함	105 (76.6)	68 (73.9)	96 (68.1)	62 (88.6)	40 (69.0)	32 (45.7)	82 (76.6)	65 (25.0)	27 (84.4)	129 (67.2)	154 (71.3)	144 (71.6)	150 (67.3)	232 (50.2)	345 (93.2)	577 (69.4)
가 끄 썩 함	9 (6.6)	2 (2.2)	16 (11.3)	1 (1.4)	5 (8.6)	13 (18.6)	7 (6.5)	22 (17.6)		21 (10.9)	20 (9.3)	20 (10.0)	14 (6.3)	64 (13.9)	11 (3.0)	75 (9.0)
보 통	4 (2.9)	5 (5.4)	11 (7.8)	2 (2.9)	3 (5.2)	9 (12.9)	6 (5.6)	13 (10.4)	1 (3.1)	15 (7.8)	11 (5.1)	11 (5.5)	17 (7.6)	46 (10.0)	8 (2.2)	54 (6.5)
자 주 함	9 (6.6)	8 (8.7)	10 (7.1)	4 (5.7)	1 (1.7)	13 (18.6)	5 (4.7)	15 (12.0)	2 (6.3)	13 (6.8)	18 (8.3)	14 (7.0)	22 (9.9)	64 (13.9)	3 (0.8)	67 (8.1)
습 관 적 으 로 함	10 (7.3)	9 (9.8)	8 (5.7)	1 (1.4)	9 (15.5)	3 (4.3)	7 (6.5)	10 (8.0)	2 (6.3)	14 (7.3)	13 (6.0)	12 (6.0)	20 (9.0)	56 (12.1)	3 (0.8)	59 (7.1)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7) 음주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음주여부는 아래의 [그림 3-2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끔씩 한다(42.3%), 보통이다(27.5%), 자주한다(14.8%), 안한다(10.6), 습관적으로 한다(4.8%)의 순이었다. 음주하는 학생이 89.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음주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음주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대(94.6%), 경상대(94.3%), 공과대(93.6%), 자연대(92.5%), 해양대(91.4%), 사범대(88.6%), 의과대(84.4%), 생명대(82.8%), 인문대(78.1%) 순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음주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1학년(92.1%), 2학년(88.9%), 4학년(88.3%), 3학년(88.1%) 순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음주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92.6%)이 여학생(85.4%) 보다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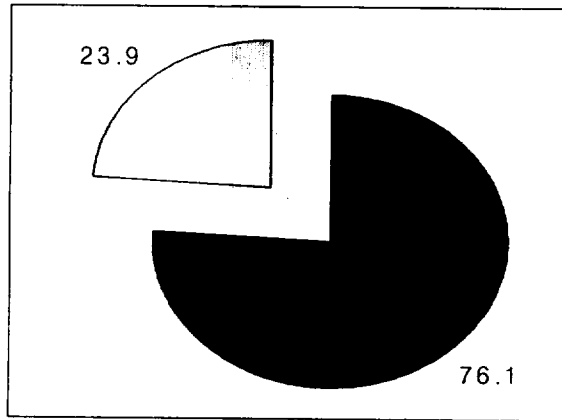
<표 3-24> 음주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안 함	30 (21.9)	5 (5.4)	8 (5.7)	8 (11.4)	10 (17.2)	6 (8.6)	8 (7.5)	8 (6.4)	5 (15.6)	14 (7.3)	24 (11.1)	24 (11.9)	26 (11.7)	34 (7.4)	54 (14.6)	88 (10.6)
가 끔 씩 함	51 (37.2)	36 (39.1)	67 (47.5)	27 (38.6)	23 (39.7)	29 (41.4)	51 (47.7)	51 (40.8)	17 (53.1)	78 (40.6)	98 (45.4)	86 (42.8)	90 (40.4)	167 (36.1)	185 (50.0)	352 (42.3)
보 통	28 (20.4)	25 (27.2)	37 (26.2)	30 (42.9)	14 (24.1)	22 (31.4)	33 (30.8)	34 (27.2)	6 (18.8)	63 (32.8)	53 (24.5)	58 (28.9)	55 (24.7)	134 (29.0)	95 (25.7)	229 (27.5)
자 주 함	22 (16.1)	19 (20.7)	21 (14.9)	3 (4.3)	5 (8.6)	11 (15.7)	10 (9.3)	28 (22.4)	4 (12.5)	27 (14.1)	35 (16.2)	23 (11.4)	38 (17.0)	95 (20.6)	28 (7.6)	123 (14.8)
습 관 적 으 로 함	6 (4.4)	7 (7.6)	8 (5.7)	2 (2.9)	6 (10.3)	2 (2.9)	5 (4.7)	4 (3.2)		10 (5.2)	6 (2.8)	10 (5.0)	14 (6.3)	32 (6.9)	8 (2.2)	40 (4.8)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8) 이성교제 경험유무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유무는 아래의 [그림 3-2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76.1%, 없는 학생이 23.9%로 나타났다.



[그림 3-25] 이성교제 경험유무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유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대(80.4%), 경상대(80.1%), 공과대(80.0%), 인문대(75.9%), 생명대(75.9%), 자연대(75.7%), 의과대(75.0%), 사범대(68.6%), 해양대(64.3%) 순으로 이성교제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6참조>).

재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 유무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4학년(82.1%), 3학년(81.1%), 2학년(76.4%), 1학년(63.5%)순으로 나타나 고학년 일수록 이성교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79.0%)이 여학생(72.4%) 보다 이성교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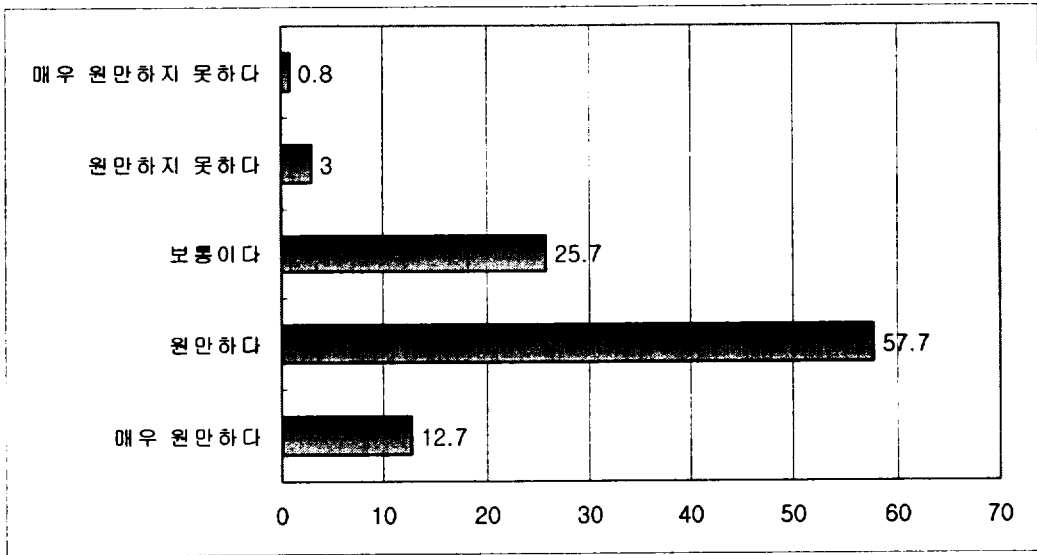
<표 3-25> 이성교제 경험유무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104 (75.9)	74 (80.4)	113 (80.1)	48 (68.6)	44 (75.9)	45 (64.3)	81 (75.7)	100 (80.0)	24 (75.0)	122 (63.5)	165 (76.4)	163 (81.1)	183 (82.1)	365 (79.0)	268 (72.4)	633 (76.1)
없다	33 (24.1)	18 (19.6)	28 (19.9)	22 (31.4)	14 (24.1)	25 (35.7)	26 (24.3)	25 (20.0)	8 (20.0)	70 (36.5)	51 (23.6)	38 (18.9)	40 (17.9)	97 (21.0)	102 (27.6)	199 (23.9)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9)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는 아래의 [그림 3-2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원만하다(57.7%), 보통이다(25.7%), 매우 원만하다(12.7%), 원만하지 못하다(3.0%), 매우 원만하지 못하다(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범대(84.3%), 법정대(77.2%), 생명대(72.4%), 의과대(71.9%), 경상대(71.6%), 해양대(71.4%), 자연대(71.1%), 공과대(70.4%), 인문대(55.5%) 순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75.0%), 3학년(72.6%), 2학년(68.5%), 4학년(66.4%) 순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학생(71.2%)과 여학생(69.4%) 모두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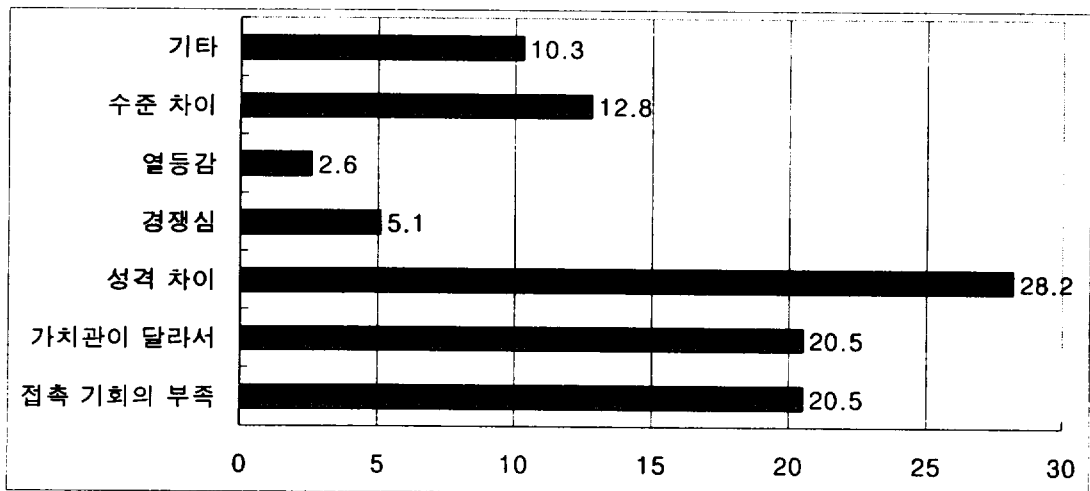
<표 3-26>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우 원만	13 (9.5)	15 (16.3)	22 (15.6)	7 (10.0)	7 (12.1)	10 (14.3)	16 (15.0)	12 (9.6)	4 (12.5)	28 (14.6)	23 (106)	31 (15.4)	24 (10.8)	67 (14.5)	39 (10.5)	106 (12.7)
원만	63 (46.0)	56 (60.9)	79 (56.0)	52 (74.3)	35 (60.3)	40 (57.1)	60 (56.1)	76 (60.8)	19 (59.4)	116 (60.4)	125 (57.9)	115 (57.2)	124 (55.6)	262 (956.7)	218 (58.9)	480 (57.7)
보통	57 (41.6)	18 (19.6)	35 (24.8)	10 (14.3)	13 (22.4)	15 (21.4)	27 (25.2)	32 (25.6)	7 (21.9)	41 (21.4)	55 (5.5)	53 (26.4)	65 (29.1)	111 (24.0)	103 (27.8)	214 (25.7)
자주 함	2 (1.5)	1 (1.1)	5 (3.5)	1 (1.4)	2 (3.4)	3 (4.3)	4 (3.7)	5 (4.0)	2 (6.3)	5 (2.6)	10 (4.6)	2 (1.0)	8 (3.6)	15 (3.2)	10 (2.7)	25 (3.0)
매우 원만하지 못함	2 (1.5)	2 (2.2)			1 (1.7)	2 (2.9)				2 (1.0)	3 (1.4)		2 (0.9)	7 (1.5)		7 (0.8)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10)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9번의 ④,⑤ 응답자만)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는 아래의 [그림 3-2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성격 차이(28.2%), 가치관이 달라서(20.5%), 접촉기회의 부족(20.5%), 수준 차이(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27>에 나타난 것 처럼 생명대(50.0%), 공과대(50.0%), 해양대(33.3%)는 성격 차이가 사범대(66.7%)는 수준차이가 경상대(42.8%)는 가치관이 달라서, 의과대(50.0%)는 접촉 기회의 부족, 가치관이 달라서, 자연대(40.0%)는 성격차이와 기타, 인문대(33.3%)는 성격 차이와 경쟁심, 법정대(25.0%)는 접촉 기회의 부족, 가치관이 달라서, 성격 차이, 수준 차이가 가장 많은 이유였다.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37.5%), 2학년(25.0%), 3학년(60.0%)은 성격 차이를 4학년(30.0%)은 가치관이 달라서라고 대답했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37.5%)은 성격 차이, 여학생(26.7%)은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났다.

<표 3-27>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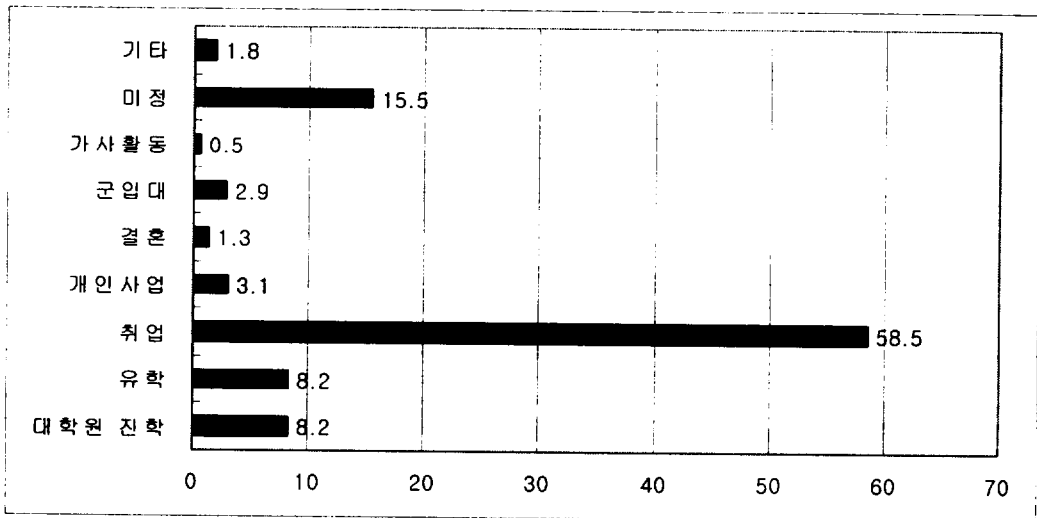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접촉 기회의 부족	1 (16.7)	1 (25.0)	2 (28.6)			2 (33.3)	1 (20.0)		1 (50.0)	2 (25.0)	3 (18.8)	1 (20.0)	2 (20.0)	5 (20.8)	3 (20.0)	8 (20.5)
가치관이 달라서	1 (16.7)	1 (25.0)	3 (42.8)			1 (16.7)		1 (25.0)	1 (50.0)	2 (25.0)	3 (18.8)		3 (30.0)	4 (16.7)	4 (26.7)	8 (20.5)
성격 차이	2 (33.3)	1 (25.0)		1 (33.3)	1 (50.0)	2 (33.3)	2 (40.0)	2 (50.0)		3 (37.5)	4 (25.0)	3 (60.0)	1 (10.0)	9 (37.5)	2 (13.3)	11 (28.2)
경쟁심	2 (33.3)										2 (12.5)			1 (4.1)	1 (6.7)	2 (5.1)
열등감					1 (50.0)								1 (10.0)	1 (4.1)		1 (2.6)
수준차이		1 (25.0)		2 (66.7)		1 (16.7)		1 (25.0)		1 (12.5)	1 (6.1)	1 (20.0)	2 (20.0)	2 (8.3)	3 (20.0)	5 (12.8)
기타			2 (28.6)				2 (40.0)				3 (18.8)		1 (10.0)	2 (8.3)	2 (13.3)	4 (10.3)
계	6 (100)	4 (100)	7 (100)	73 (100)	2 (100)	6 (100)	4 (100)	4 (100)	2 (100)	8 (100)	16 (100)	5 (100)	10 (100)	24 (100)	15 (100)	39 (100)

5. 취업 관련

1) 졸업 후 진로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아래의 [그림 3-2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취업(58.5%), 미정(15.5%), 대학원 진학(8.2%), 유학(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졸업 후 진로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78.1%), 사범대(77.1%), 경상대(68.1%), 법정대(65.2%), 공과대(61.6%), 자연대(57.9%), 생명대(46.6%), 해양대(44.3%), 인문대(40.1%) 순으로 취업을 하는 걸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59.4%), 2학년(54.6%), 3학년(61.7%), 4학년(58.7%) 모두 비슷하게 취업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성별에 따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학생(60.8%)이 여학생(55.7%) 보다 조금 더 취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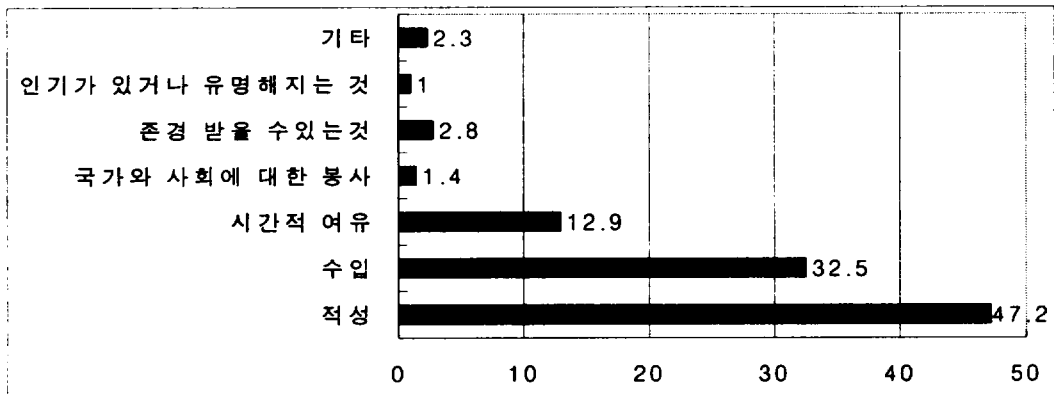
<표 3-28> 졸업 후 진로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대학원학	7 (5.1)	6 (6.5)	4 (2.8)	2 (2.9)	4 (6.9)	8 (11.4)	19 (17.8)	15 (12.0)	3 (9.4)	13 (6.8)	17 (7.9)	15 (7.5)	23 (10.3)	40 (8.7)	28 (7.6)	68 (8.2)
유학	18 (13.1)	2 (2.2)	15 (10.6)	1 (1.4)	7 (12.1)	11 (15.7)	3 (2.8)	10 (8.0)	1 (3.1)	16 (8.3)	13 (6.0)	19 (9.5)	20 (9.0)	32 (6.9)	36 (9.7)	68 (8.2)
취업	55 (40.1)	60 (65.2)	96 (68.1)	54 (77.1)	27 (46.6)	31 (44.3)	62 (57.9)	77 (61.6)	2 (78.1) 5	114 (59.4)	118 (54.6)	124 (61.7)	131 (58.7)	281 (60.8)	206 (55.7)	487 (58.5)
개인사업	6 (4.4)	1 (1.1)	3 (2.1)	2 (2.9)	1 (1.7)	2 (2.9)	7 (6.5)	4 (3.2)		7 (3.6)	8 (3.7)	6 (3.0)	5 (2.2)	21 (4.5)	5 (1.4)	26 (3.1)
결혼	2 (1.5)		1 (0.7)	1 (1.4)	1 (1.7)	1 (1.4)	1 (0.9)	4 (3.2)			4 (1.9)	3 (1.5)	4 (1.8)	3 (0.6)	8 (2.2)	11 (1.3)
군입대	3 (2.2)	3 (3.3)	3 (2.1)	1 (1.4)	6 (10.3)	1 (1.4)	5 (4.7)	1 (0.8)	1 (3.1)	8 (4.2)	6 (2.8)	4 (2.0)	6 (2.7)	23 (5.0)	1 (0.3)	24 (2.9)
가사활동		1 (1.1)	1 (0.7)				1 (0.9)	1 (0.8)		2 (1.0)	2 (0.9)			2 (0.4)	2 (0.5)	4 (0.5)
미정	45 (32.8)	15 (16.3)	16 (11.3)	4 (5.7)	11 (19.0)	16 (22.9)	9 (8.4)	12 (9.6)	1 (3.1)	30 (15.6)	42 (19.4)	28 (13.9)	29 (13.0)	55 (11.9)	74 (20.0)	129 (15.5)
기타	1 (0.7)	4 (4.3)	2 (1.4)	5 (7.1)	1 (1.7)			1 (0.8)	1 (3.1)	2 (1.0)	6 (2.8)	2 (1.0)	5 (2.2)	5 (1.1)	10 (2.7)	15 (1.8)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2)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아래의 [그림 3-2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적성(47.2%), 수입(32.5%), 시간적 여유(12.9%), 존경받을 수 있는 것(2.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9]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을 <표 3-30>에서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범대(64.3%), 의과대(56.3%), 자연대(56.1%), 법정대(53.3%), 공과대(49.6%), 경상대(48.2%)는 적성을 해양대(45.7%), 생명대(43.1%), 인문대(40.1%)는 수입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9.0%), 2학년(48.1%), 3학년(49.8%), 4학년(42.6%) 모두 비슷하게 적성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43.9%) 보다 여학생(51.4%)이 적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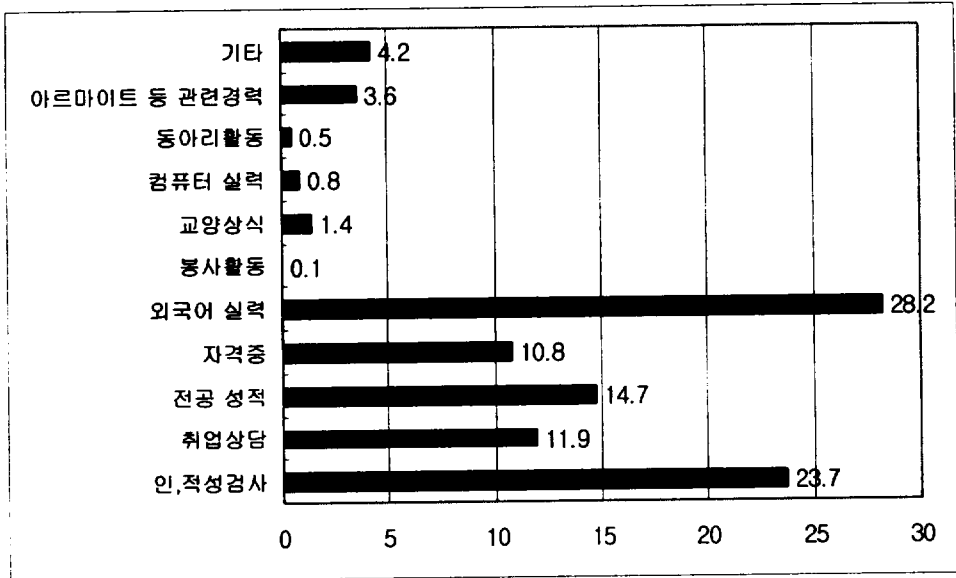
<표 3-29>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적 성	51 (37.2)	49 (53.3)	68 (48.2)	45 (64.3)	19 (32.8)	21 (30.0)	60 (56.1)	62 (49.6)	18 (56.3)	94 (49.0)	104 (48.1)	100 (49.8)	95 (42.6)	203 (43.9)	190 (51.4)	393 (47.2)
수 입	55 (40.1)	22 (23.9)	47 (33.3)	13 (18.6)	25 (43.1)	32 (45.7)	33 (30.8)	34 (27.2)	9 (28.1)	63 (32.8)	69 (31.9)	59 (29.4)	79 (35.4)	165 (35.7)	105 (28.4)	270 (32.5)
시 간 적 여 유	20 (14.6)	13 (14.1)	18 (12.8)	6 (8.6)	10 (17.2)	12 (17.1)	7 (6.5)	19 (15.2)	2 (6.3)	25 (13.0)	29 (13.4)	27 (13.4)	26 (11.7)	65 (14.1)	42 (11.4)	107 (12.9)
국 가 와 사 회 에 대 한 봉사	3 (2.2)		1 (0.7)	2 (2.9)	1 (1.7)	2 (2.9)	1 (0.9)	2 (1.6)			2 (0.9)	5 (2.5)	5 (2.2)	9 (1.9)	3 (0.8)	12 (1.4)
존 경 받을 수 있는 것	2 (1.5)	3 (3.3)	6 (4.3)		2 (3.4)	2 (2.9)	2 (1.9)	5 (4.0)	1 (3.1)	5 (2.6)	7 (3.2)	5 (2.5)	6 (2.7)	10 (2.2)	13 (3.5)	23 (2.8)
인기가 있 거나 유명 해지는 것	2 (1.5)					1 (1.4)	2 (1.9)	3 (2.4)		3 (1.6)	2 (0.9)	1 (0.5)	2 (0.9)	3 (0.6)	5 (1.4)	8 (1.0)
기 타	4 (2.9)	5 (5.4)	1 (0.7)	4 (5.7)	1 (1.7)		2 (1.9)		2 (6.3)	2 (1.0)	3 (1.4)	4 (2.0)	10 (4.5)	7 (1.5)	12 (3.2)	19 (2.3)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3)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래의 [그림 3-3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외국어 실력(28.2%), 인·적성검사(23.7%), 전공성적(14.7%), 취업상담(11.9%), 자격증(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42.6%), 인문대(36.5%), 법정대(34.8%), 공과대(28.8%), 자연대(22.4%)는 외국어 실력, 사범대(64.3%), 의과대(56.3%)는 전공성적, 해양대(22.9%)는 자격증을 생명대(43.1%)는 인·적성검사로 나타났다(<표 3-30참조>).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26.0%)은 인·적성검사를 2학년(26.4%) 3학년(31.8%) 4학년(31.8%)은 외국어 실력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28.1%)과 여학생(28.4%) 모두 외국어 실력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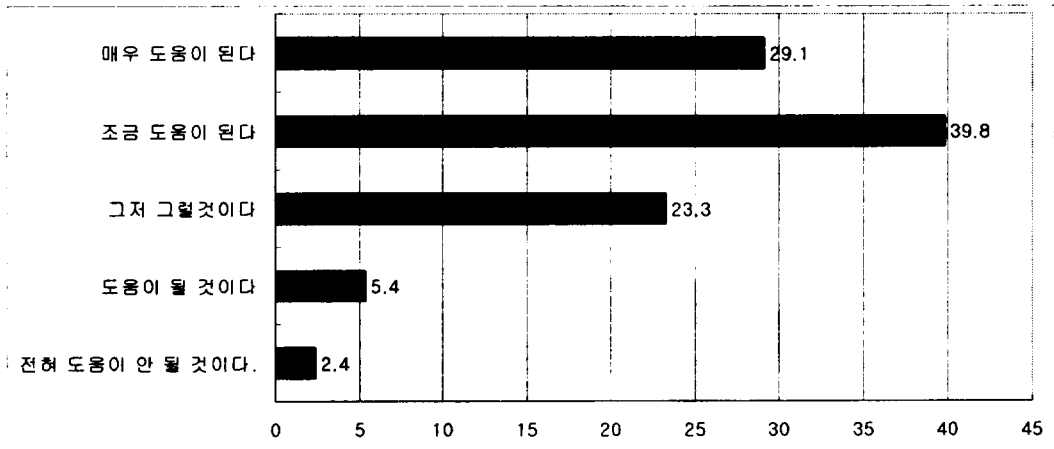
<표 3-30>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인·적성 검사	30 (21.9)	29 (31.5)	30 (21.3)	17 (24.3)	19 (32.8)	14 (20.0)	22 (20.6)	23 (18.4)	13 (40.6)	50 (26.0)	48 (22.2)	47 (23.4)	52 (23.3)	106 (22.9)	91 (24.6)	197 (23.7)
취업 상담	15 (10.9)	9 (9.8)	13 (9.2)	6 (8.6)	5 (8.6)	13 (18.6)	17 (15.9)	18 (14.4)	3 (9.4)	23 (12.0)	21 (9.7)	24 (11.9)	31 (13.9)	55 (11.9)	44 (11.9)	99 (11.9)
전공 적성	16 (11.7)	7 (7.6)	12 (8.5)	22 (31.4)	8 (13.8)	11 (15.7)	20 (18.7)	12 (9.6)	14 (43.8)	35 (18.2)	31 (14.4)	28 (13.9)	28 (12.6)	68 (14.7)	54 (14.6)	122 (14.7)
자격 증	15 (10.9)	5 (5.4)	12 (8.5)	4 (5.7)	6 (10.3)	16 (22.9)	15 (14.0)	16 (12.8)	1 (3.1)	22 (11.5)	36 (16.7)	13 (6.5)	19 (8.5)	59 (12.8)	31 (8.4)	90 (10.8)
외국 어실력	50 (36.5)	32 (34.8)	60 (42.6)	8 (11.4)	14 (24.1)	11 (15.7)	24 (22.4)	36 (28.8)		43 (22.4)	57 (26.4)	64 (31.8)	71 (31.8)	130 (28.1)	105 (28.4)	235 (28.2)
봉사 활동	1 (0.7)												1 (0.4)		1 (0.3)	1 (0.1)
교양 식		1 (1.1)		3 (4.3)	2 (3.4)	1 (1.4)	2 (1.9)	3 (2.4)		4 (2.1)	1 (0.5)	3 (1.5)	4 (1.8)	5 (1.1)	7 (1.9)	12 (1.4)
컴퓨터 실력		1 (1.1)	1 (0.7)			2 (2.9)		3 (2.4)		2 (1.0)	3 (1.4)	1 (0.5)	1 (0.4)	5 (1.1)	2 (0.5)	7 (0.8)
동아 리활동			1 (0.7)				1 (0.9)	2 (1.6)		2 (1.0)	2 (0.9)			3 (0.6)	1 (0.3)	4 (0.5)
아르바이트 등 관련경력	4 (2.9)	4 (4.3)	7 (5.0)	2 (2.9)	3 (5.2)	2 (2.9)	2 (1.9)	5 (4.0)	1 (3.1)	6 (3.1)	9 (4.2)	10 (5.0)	5 (2.2)	12 (2.6)	18 (4.9)	30 (3.6)
기 타	6 (4.4)	4 (4.3)	5 (3.5)	8 (11.4)	1 (1.7)		4 (3.7)	7 (5.6)		5 (2.6)	8 (3.7)	11 (5.5)	11 (4.9)	19 (4.1)	16 (4.3)	35 (4.2)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4)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그림 3-3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도움이 될 것이다가 68.9%, 그저 그럴 것이다 23.3%, 도움이 안 될 것이다 7.8%로 나타나 현재 전공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1]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96.9%), 자연대(74.7%), 사범대(74.3%), 법정대(73.9%), 생명대(67.3%), 경상대(66.6%), 공과대(64.8%), 인문대(62.1), 해양대(61.5%)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73.4%), 2학년(69.5%), 4학년(66.8%), 3학년(66.2%)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65.3%) 보다 여학생(73.2%)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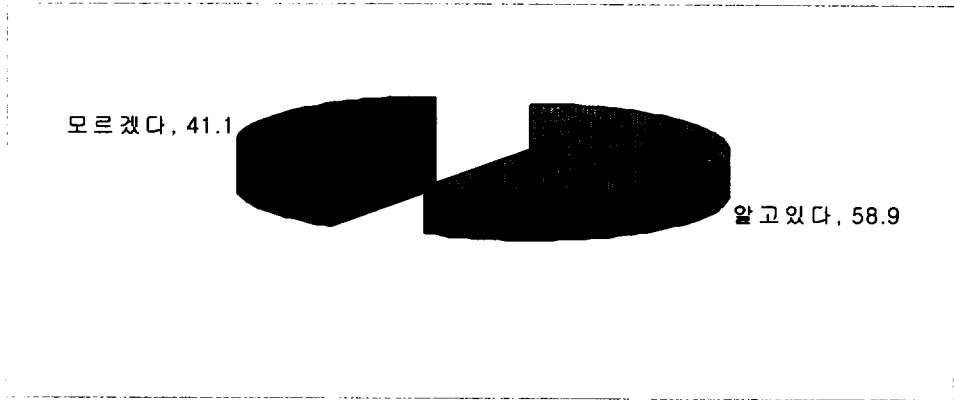
<표 3-31>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5 (3.6)	2 (2.2)	3 (2.1)	1 (1.4)	3 (5.2)		1 (0.9)	5 (4.0)		5 (2.6)	7 (3.2)	3 (1.5)	5 (2.2)	16 (3.5)	4 (1.1)	20 (2.4)
도움이 안될 것이다	5 (0.36)	5 (5.4)	11 (7.8)	4 (5.7)	3 (5.2)	7 (10.0)	1 (0.9)	9 (7.2)		8 (4.2)	9 (4.2)	13 (6.5)	15 (6.7)	27 (5.8)	18 (4.9)	45 (5.4)
그저 그럴것이다	42 (30.7)	17 (18.5)	33 (23.4)	139 (23.4)	13 (22.4)	20 (28.6)	25 (23.4)	30 (24.0)	1 (3.1)	38 (19.8)	50 (23.1)	52 (25.9)	54 (24.2)	117 (25.3)	77 (20.8)	194 (2.3)
조금 도움이 된다	59 (43.1)	48 (52.2)	67 (47.5)	16 (47.5)	23 (39.7)	27 (38.6)	41 (38.3)	41 (38.3)	9 (28.1)	78 (40.6)	84 (38.9)	76 (37.8)	93 (41.7)	167 (36.1)	164 (44.3)	331 (39.8)
매우 도움이 된다	26 (19.0)	20 (21.7)	27 (19.1)	36 (51.4)	16 (27.6)	16 (22.9)	39 (36.4)	40 (32.0)	22 (68.8)	63 (32.8)	66 (30.6)	57 (28.4)	56 (25.1)	135 (29.2)	107 (28.9)	242 (29.1)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5) 직업능력개발원 인지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인지여부는 다음 [그림 3-3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알고 있다가 58.9%, 모르겠다가 41.1%로 나타났다.



[그림 3-33] 직업능력개발원 인지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인지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32>에서 알 수 있듯이 경상대(73.8%), 법정대(69.6%), 자연대(63.6%), 인문대(55.5%), 의과대(53.1%), 사범대(52.9%), 공과대(51.2%), 생명대(48.3%), 해양대(45.7%) 순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인지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3학년(65.2%) 4학년(61.4%), 2학년(60.6%), 1학년(47.4%) 순으로 알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50.9%) 보다 여학생(68.9%)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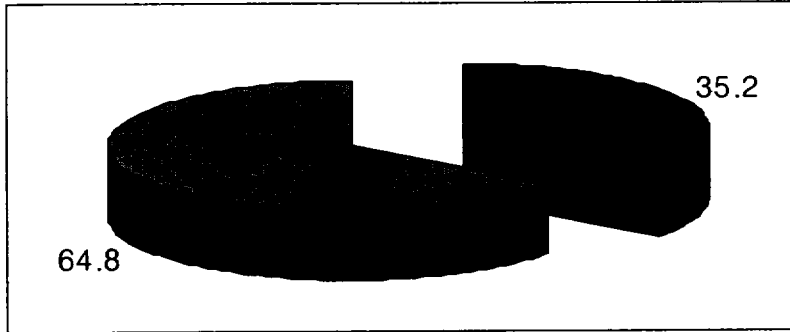
<표 3-32> 직업능력개발원 인지여부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알고 있다	76 (55.5)	64 (69.6)	104 (73.8)	37 (73.8)	28 (52.9)	32 (48.3)	68 (63.6)	64 (51.2)	17 (53.1)	90 (47.4)	131 (60.6)	131 (65.2)	137 (61.4)	235 (50.9)	255 (68.9)	490 (58.9)
모르겠다	61 (44.5)	28 (30.4)	37 (26.2)	33 (26.2)	30 (47.1)	38 (54.3)	39 (36.4)	61 (48.8)	15 (46.9)	101 (52.6)	85 (39.4)	70 (34.8)	86 (38.6)	227 (49.1)	115 (31.1)	342 (41.1)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6)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여부(5번의 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을 알고 있는 학생 중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 여부는 아래의 [그림 3-3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용했다가 64.8%, 모르겠다가 35.2%로 나타났다.



[그림 3-33]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대(44.6%), 생명대(42.9%), 경상대(41.3%), 공과대(37.5%), 사범대(32.4%), 해양대(31.3%), 의과대(29.4%), 자연대(27.5%), 인문대(25.0%) 순으로 이용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4학년(40.1%), 2학년(38.9%), 3학년(30.5%) 1학년(29.0%) 순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29.4%) 보다 여학생(40.5%)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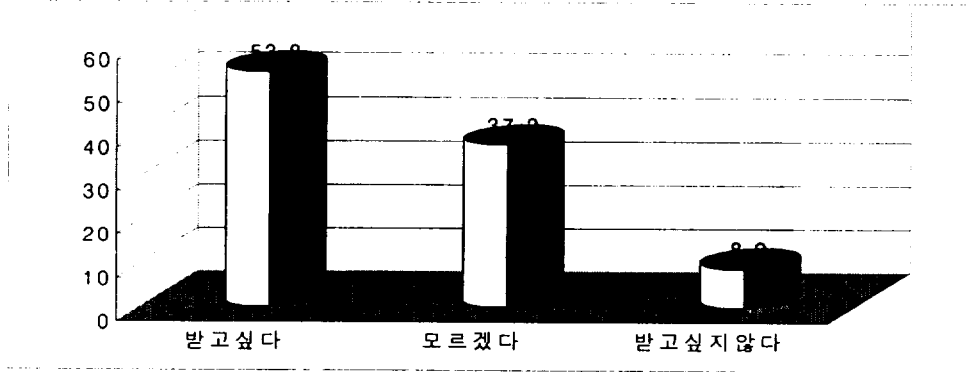
<표 3-33>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이용했다	19 (25.0)	29 (44.6)	43 (41.3)	12 (32.4)	12 (42.9)	10 (31.3)	19 (27.5)	24 (37.5)	5 (29.4)	27 (29.0)	51 (38.9)	40 (30.5)	55 (40.1)	69 (29.4)	104 (40.5)	173 (35.2)
이용하지 않았다	57 (75.0)	36 (55.4)	61 (58.7)	25 (67.6)	16 (57.1)	22 (68.7)	50 (72.5)	40 (62.5)	12 (70.6)	66 (71.0)	80 (61.1)	91 (69.5)	82 (59.9)	166 (70.6)	153 (59.5)	319 (64.8)
계	76 (100)	65 (100)	104 (100)	37 (100)	28 (100)	32 (100)	69 (100)	64 (100)	17 (100)	93 (100)	131 (100)	131 (100)	137 (100)	235 (100)	257 (100)	832 (100)

7)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는 아래의 [그림 3-3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받고 싶다 53.8%, 모르겠다 37.3%, 받고 싶지 않다 8.9%로 나타났다.



[그림 3-34]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연대(59.8%), 법정대(57.6%), 경상대(57.4%), 인문대(54.7%), 공과대(54.4%), 해양대(50.0%), 사범대(50.0%), 의과대(46.9%), 생명대(37.9%)의 순으로 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3학년(58.2%), 1학년(57.3%), 2학년(50.9%) 4학년(49.8%) 순으로 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51.3%) 보다 여학생(57.0%)이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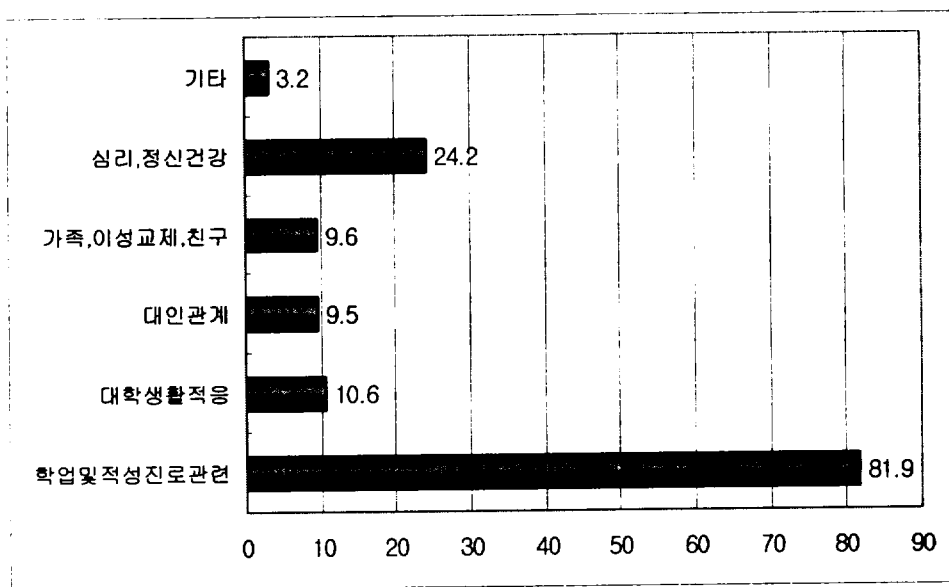
<표 3-34>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받고 싶다	75 (54.7)	53 (57.6)	81 (57.4)	35 (50.0)	22 (37.9)	35 (50.0)	64 (59.8)	68 (59.8)	15 (46.9)	110 (57.3)	110 (50.9)	117 (58.2)	111 (49.8)	237 (51.3)	211 (57.0)	448 (53.8)	
모르겠다	54 (39.4)	34 (37.0)	53 (37.6)	24 (34.3)	26 (44.8)	30 (42.9)	34 (31.8)	45 (31.8)	10 (31.3)	71 (37.0)	82 (38.0)	70 (34.8)	87 (39.0)	180 (39.0)	130 (35.1)	310 (37.3)	
받고 싶지 않다	8 (5.8)	5 (5.4)	7 (5.0)	11 (15.7)	10 (17.2)	5 (7.1)	9 (8.4)	12 (9.6)	7 (21.9)	11 (5.7)	24 (11.1)	14 (7.0)	25 (11.2)	45 (9.7)	29 (7.8)	74 (8.9)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8)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받고 싶은 상담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아래의 [그림 3-3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업 및 적성 진로관련이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 정신건강 24.2%, 대학생활 적응이 10.6%, 가족, 이성교제, 친구는 9.6%, 대인관계 9.5%,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받고 싶은 상담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90.0%), 법정대(88.0%), 자연대(85.0%), 인문대(81.8%), 공과대(81.6%), 사범대(77.1%), 해양대(74.3%), 의과대(59.4%), 생명대(54.4%)의 순으로 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86.0%), 2학년(82.4%), 4학년(80.3%), 3학년(79.1%) 순으로 학업 및 적성 진로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83.1%)과 여학생(80.3%) 모두 학업 및 적성 진로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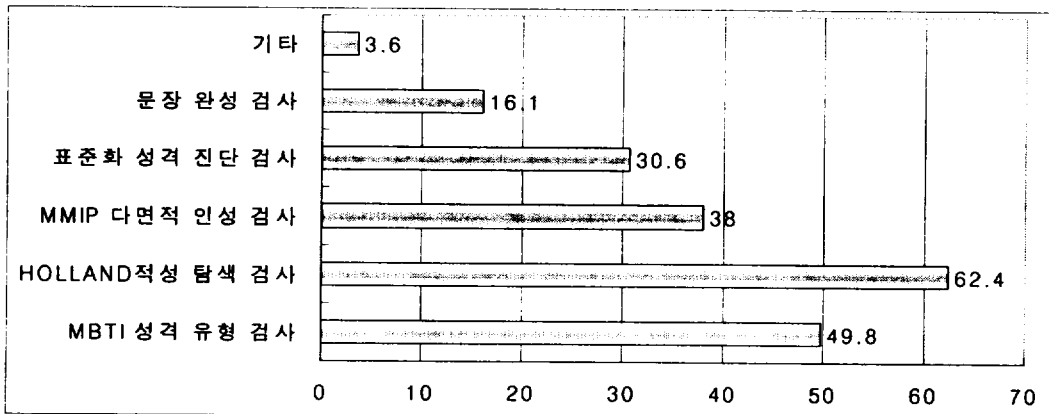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학업 및 적성 관련 진로 상담	112 (81.8)	81 (88.0)	127 (90.1)	54 (77.1)	43 (74.1)	52 (74.3)	91 (85.0)	102 (81.6)	19 (59.4)	165 (85.9)	178 (85.4)	159 (79.1)	179 (80.3)	384 (83.1)	297 (80.3)	681 (81.9)
대학생활 적응 상담	12 (8.8)	7 (7.6)	19 (13.5)	4 (5.7)	5 (8.6)	11 (15.7)	13 (12.1)	12 (9.6)	5 (15.6)	35 (18.2)	17 (7.9)	17 (8.5)	19 (8.5)	57 (12.3)	31 (8.4)	88 (10.6)
대인관계 상담	15 (10.9)	6 (6.5)	15 (10.6)	6 (8.6)	5 (8.6)	9 (12.9)	6 (5.6)	13 (10.4)	4 (12.5)	19 (9.9)	24 (11.1)	13 (6.5)	23 (10.3)	48 (10.4)	31 (8.4)	79 (9.5)
가족, 이성 교제, 친구 상담	18 (13.1)	6 (6.5)	8 (5.7)	9 (12.9)	5 (8.6)	15 (21.4)	7 (6.5)	10 (8.0)	2 (6.3)	20 (10.4)	25 (11.6)	13 (6.5)	22 (9.9)	51 (11.0)	29 (7.8)	80 (9.6)
심리, 정신 건강 상담	33 (24.1)	18 (19.6)	28 (19.9)	21 (30.0)	15 (25.9)	20 (28.6)	29 (27.1)	22 (17.6)	15 (46.9)	35 (17.7)	51 (23.6)	49 (24.4)	66 (29.6)	82 (17.7)	119 (32.2)	201 (24.2)
기타 상담	1 (0.7)	2 (2.2)	5 (3.5)	5 (7.1)	6 (10.3)		3 (2.8)	5 (4.0)		4 (2.1)	8 (3.7)	8 (4.0)	7 (3.1)	18 (3.9)	9 (2.4)	27 (3.2)

주 : 복수응답

9)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심리검사를 받고 싶은 항목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3-3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Holland 적성탐색검사가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BTI 성격유형검사 49.8%, MMIP 다면적 인성검사 38.0%,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30.6%, 문장완성검사 16.1%, 기타 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해양대(67.1%), 공과대(65.6%), 경상대(64.5%), 인문대(64.2%), 법정대(63.0%), 자연대(61.7%), 생명대(56.9%), 사범대(55.7%)는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의과대(78.1%)는 MMPI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69.3%), 3학년(61.7%), 2학년(61.1%) 4학년(58.3%) 모두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62.8%)과 여학생(61.9%) 모두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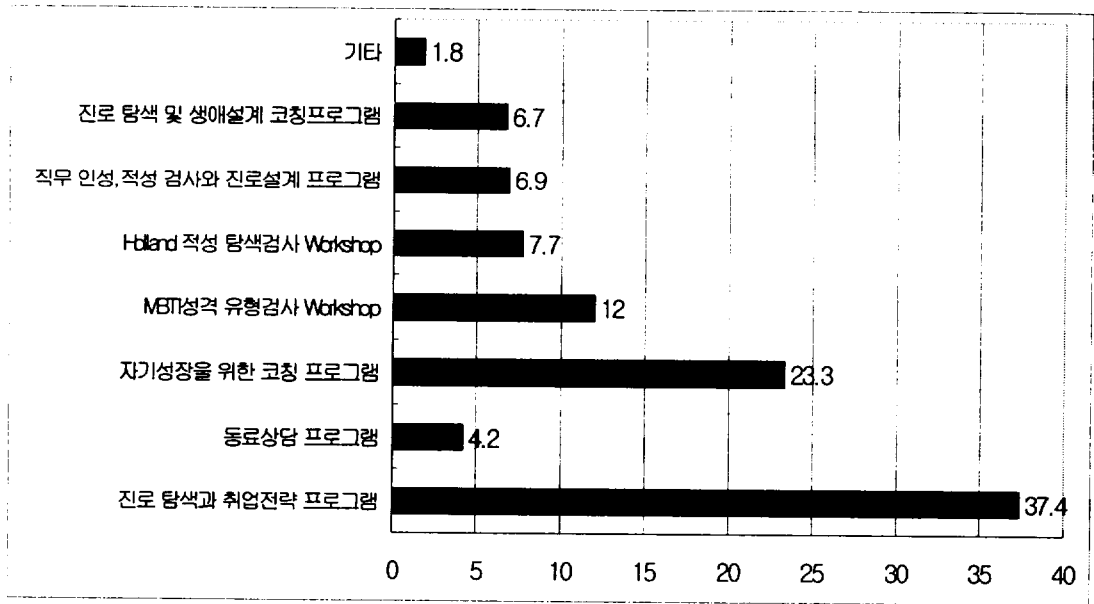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MBTI 성격유형 검사	55 (40.1)	46 (50.0)	73 (45.7)	32 (45.7)	26 (44.8)	38 (54.3)	5 (55.1)	64 (51.2)	21 (65.6)	107 (55.7)	107 (49.5)	97 (48.3)	103 (46.2)	228 (49.4)	186 (50.3)	414 (49.8)
Holland 적성탐색	88 (64.2)	58 (63.0)	91 (64.5)	39 (55.7)	33 (56.9)	47 (67.1)	66 (61.7)	82 (65.6)	15 (46.9)	133 (69.3)	132 (61.1)	124 (61.7)	130 (58.3)	290 (62.8)	229 (61.9)	519 (62.4)
MMPI 다면적 인성검사	55 (40.1)	32 (4.8)	54 (8.3)	32 (45.7)	15 (25.9)	22 (31.4)	35 (32.7)	46 (36.8)	25 (78.1)	75 (39.1)	73 (33.8)	84 (41.8)	84 (37.7)	162 (35.1)	154 (41.6)	316 (38.0)
표준화 성격검사	46 (33.6)	28 (30.4)	44 (31.2)	20 (28.6)	12 (20.7)	22 (31.4)	32 (29.9)	33 (26.4)	18 (56.3)	52 (27.1)	61 (28.2)	67 (33.3)	75 (33.6)	140 (30.3)	115 (31.1)	255 (30.6)
문장완성 검사	23 (16.8)	16 (17.4)	21 (14.9)	10 (14.3)	5 (8.6)	13 (18.6)	16 (15.0)	26 (20.8)	4 (12.5)	29 (15.1)	38 (17.6)	36 (17.9)	31 (13.9)	74 (16.0)	60 (16.2)	134 (16.1)
기 타	3 (2.2)	3 (3.3)	4 (2.8)	4 (5.7)	4 (6.9)	1 (1.4)	4 (3.7)	7 (5.6)		3 (1.6)	7 (3.2)	11 (5.5)	9 (4.0)	20 (4.3)	10 (2.7)	30 (3.6)

주 : 복수응답

10)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아래의 [그림 3-3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진로탐색과 취업전략 프로그램(37.4%), 자기성장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23.3%), MBTI 성격유형검사 Workshop(12.0%), Holland 적성탐색검사 Workshop(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46.0%), 경상대(41.8%), 법정대(40.2%), 공과대(40.0%), 사범대(40.0%), 해양대(31.4%), 자연대(29.9%)는 진로탐색과 취업전략 프로그램을 의과대(31.3%), 생명대(27.6%)는 자기성장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57.3%), 2학년(50.9%), 3학년(58.2%), 4학년(49.8%) 모두 진로탐색과 취업전략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신청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성별에 따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학생(38.1%), 여학생(36.5%) 모두 진로탐색과 취업전략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신청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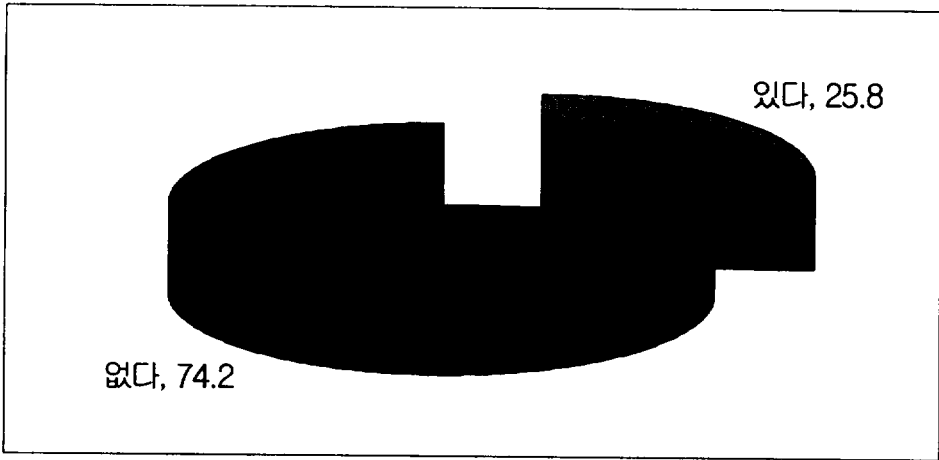
<표 3-37>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진로탐색과 취업전략 프로그램	63 (46.0)	37 (40.2)	59 (41.8)	28 (40.0)	14 (24.1)	22 (31.4)	32 (29.9)	50 (40.0)	6 (18.8)	70 (36.5)	76 (35.2)	76 (37.8)	89 (39.9)	176 (38.1)	135 (36.5)	311 (37.4)	
동료상담 프로그램	9 (6.6)	4 (4.3)	5 (3.5)	6 (8.6)	3 (5.2)		1 (0.9)	6 (4.8)	1 (3.1)	9 (4.6)	5 (2.3)	10 (5.0)	11 (4.9)	17 (3.7)	18 (4.9)	35 (4.2)	
자기성장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34 (24.8)	25 (27.2)	26 (18.4)	18 (25.7)	16 (27.6)	11 (15.7)	30 (28.0)	24 (19.1)	10 (31.3)	50 (26.0)	51 (23.6)	48 (23.9)	45 (20.2)	110 (23.8)	84 (22.7)	194 (23.3)	
MBTI성격 유형검사 Workshop	8 (5.8)	6 (6.5)	17 (12.1)	5 (7.1)	6 (10.3)	15 (21.4)	17 (15.9)	16 (12.8)	10 (31.3)	21 (10.9)	31 (14.4)	19 (9.5)	29 (13.0)	55 (11.9)	45 (12.2)	100 (12.0)	
Holland 적성탐색 검사 Workshop	2 (1.5)	5 (5.4)	10 (7.1)	5 (7.1)	6 (10.3)	14 (20.0)	15 (14.0)	5 (4.0)	2 (6.3)	19 (9.9)	17 (7.9)	14 (7.3.0)	14 (6.3)	40 (8.7)	24 (6.5)	64 (7.7)	
직무인성· 적성검사와 진로설계 프로그램	7 (5.1)	7 (7.6)	14 (9.9)	3 (4.3)	6 (10.3)	3 (4.3)	1 (0.9)	13 (10.4)	3 (9.4)	10 (5.2)	16 (7.4)	16 (8.0)	15 (6.7)	34 (7.4)	23 (6.2)	57 (6.9)	
진로탐색 및 생애설계 코칭 프로그램	12 (8.8)	6 (6.5)	8 (5.7)	2 (2.9)	5 (8.6)	4 (5.7)	9 (8.4)	10 (8.0)		12 (6.3)	16 (7.4)	16 (8.0)	12 (5.4)	20 (4.3)	36 (9.7)	56 (6.7)	
기 타	2 (1.5)	2 (2.2)	2 (1.4)	3 (4.3)	2 (3.4)	1 (1.4)	2 (1.9)	1 (0.8)		1 (0.5)	4 (1.9)	2 (1.0)	8 (3.6)	10 (2.2)	5 (1.4)	15 (1.8)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11)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는 아래의 [그림 3-3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다가 25.8%, 없다가 74.2%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34.8%), 공과대(28.8%), 해양대(28.6%), 인문대(27.0%), 자연대(24.3%), 법정대(23.9%), 생명대(20.7%), 사범대(17.1%), 의과대(3.1%) 순으로 수강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4학년(35.4%), 3학년(28.9%), 2학년(22.7%), 1학년(15.1%) 순으로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학생(26.2%)과 여학생(25.4%)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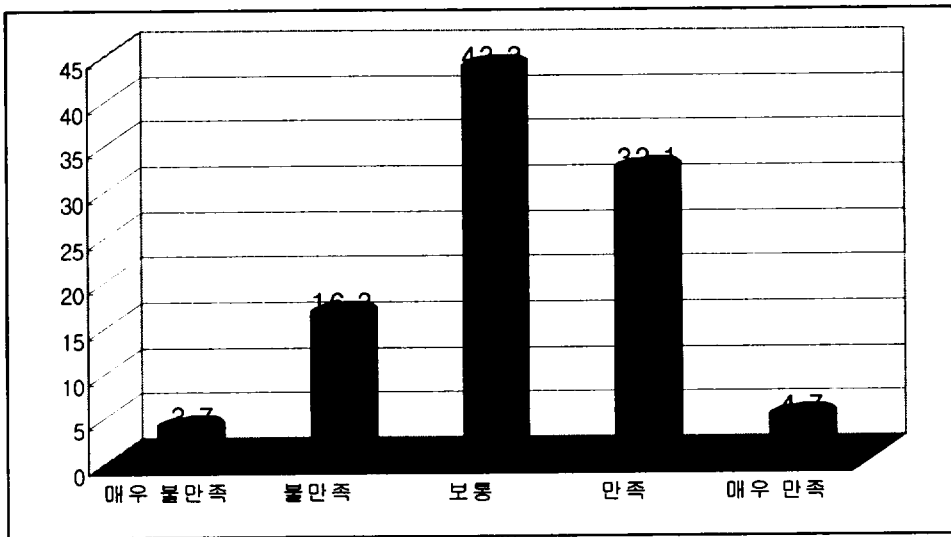
<표 3-38>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37 (27.0)	22 (23.9)	49 (34.8)	12 (17.1)	12 (17.1)	20 (28.6)	26 (24.3)	36 (28.8)	1 (3.1)	29 (153.1)	49 (22.7)	58 (28.9)	79 (35.4)	121 (26.2)	94 (25.4)	215 (25.8)
없다	100 (73.0)	70 (76.1)	92 (65.2)	58 (82.9)	46 (79.3)	50 (71.4)	81 (75.7)	89 (71.2)	3 (96.9)	163 (84.9)	167 (77.3)	143 (71.1)	144 (64.6)	341 (73.8)	276 (74.6)	617 (74.2)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12)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11번의 ①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의 [그림 3-3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통 43.3%, 만족 36.8%, 불만족 20.0%로 나타났다.



[그림 3-39]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46.9%), 인문대(45.9%), 공과대(38.9%), 자연대(33.3%), 법정대(31.8%), 생명대(25.0%), 해양대(20.0%), 사범대(8.3%) 순으로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2학년(36.7%), 4학년(36.7%), 3학년(31.3%), 1학년(26.7%) 순으로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해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보면, 거의 비슷하나 여학생(37.2%)이 남학생(36.0%) 보다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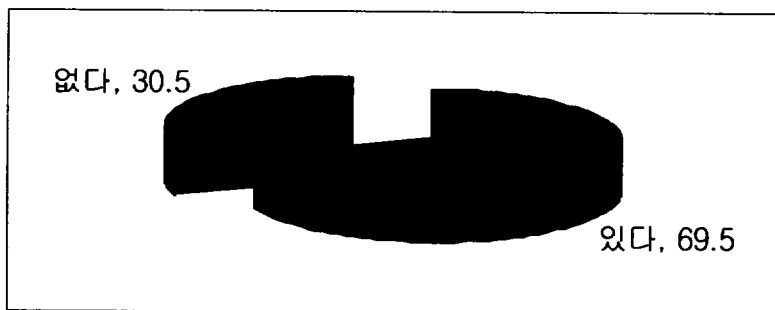
<표 3-39>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우 만족		4 (18.2)	3 (6.1)		1 (8.3)					1 (3.3)	2 (4.0)	2 (3.4)	3 (3.8)	5 (4.0)	3 (3.2)	8 (3.7)
불만족	5 (13.5)	3 (13.6)	8 (16.3)	3 (25.0)	5 (41.7)	6 (30.0)		5 (13.9)		2 (6.7)	10 (20.4)	7 (12.0)	16 (20.2)	23 (18.9)	12 (12.8)	35 (16.2)
보통	15 (40.5)	8 (36.4)	15 (30.6)	8 (66.7)	3 (25.0)	10 (50.0)	18 (66.7)	17 (47.2)		19 (63.3)	19 (38.8)	25 (43.1)	31 (39.2)	50 (41.0)	44 (46.8)	94 (43.5)
만족	14 (37.8)	7 (31.8)	22 (44.9)		2 (16.7)	3 (15.0)	7 (25.9)	13 (36.1)	1 (100)	8 (26.7)	16 (32.7)	18 (31.0)	27 (34.2)	38 (31.1)	31 (32.9)	69 (31.9)
매우만족	3 (8.1)		1 (2.0)	1 (8.3)	1 (8.3)	1 (5.0)	2 (7.4)	1 (2.8)			2 (4.0)	6 (10.3)	2 (2.5)	6 (4.9)	4 (4.3)	10 (4.6)
계	37 (100)	22 (100)	49 (100)	12 (100)	12 (100)	20 (100)	27 (100)	36 (100)	1 (100)	30 (100)	49 (100)	58 (100)	79 (100)	122 (100)	94 (100)	216 (100)

13)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는 아래의 [그림 3-4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다가 69.5%, 없다가 30.5%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77.3%), 해양대(74.3%), 공과대(75.2%), 자연대(72.9%), 인문대(69.8%), 법정대(67.4%), 생명대(65.5%), 사범대(57.1%), 의과대(31.3%) 순으로 수강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81.8%), 2학년(75.0%), 3학년(69.2%), 4학년(53.8%) 순으로 수강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를 성별에 따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학생(70.6%)과 여학생(68.1%) 모두 수강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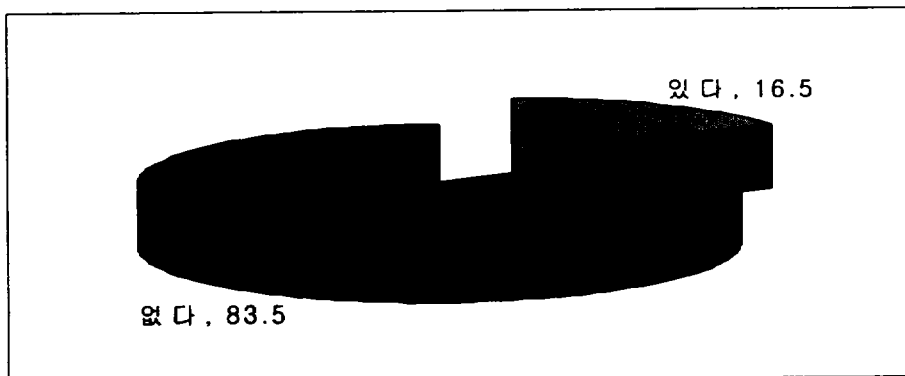
<표 3-40>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95 (69.3)	62 (67.4)	109 (77.3)	40 (57.1)	38 (65.5)	52 (65.5)	78 (72.9)	94 (75.2)	10 (31.3)	157 (81.8)	162 (75.0)	139 (69.2)	120 (53.8)	326 (70.6)	252 (68.1)	578 (69.5)
없다	42 (30.7)	30 (32.6)	32 (22.7)	30 (42.9)	20 (34.5)	18 (34.5)	29 (27.1)	31 (24.8)	22 (68.8)	35 (18.2)	54 (25.0)	62 (30.8)	103 (46.2)	136 (29.4)	118 (31.9)	254 (30.5)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14)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여부는 아래의 [그림 3-4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다가 16.5%, 없다가 83.5%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여부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대(26.1%), 인문대(21.9%), 생명대(17.2%), 경상대(17.0%), 공과대(15.2%), 자연대(14.0%), 해양대(12.9%), 사범대(8.6%), 의과대(0%) 순으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3학년(19.9%), 4학년(18.8%), 2학년(18.5%), 1학년(7.8%) 순으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14.9%)보다 여학생(18.4%)이 더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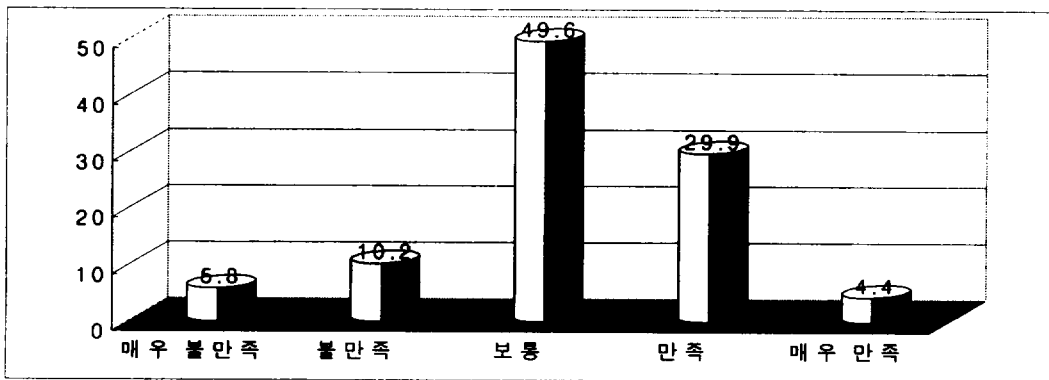
<표 3-4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여부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30 (21.9)	24 (26.1)	24 (17.0)	6 (8.6)	10 (17.2)	9 (12.9)	15 (14.0)	19 (15.2)		15 (7.8)	40 (18.5)	40 (19.9)	42 (18.8)	69 (14.9)	68 (18.4)	137 (16.5)
없다	107 (78.1)	68 (73.9)	117 (83.0)	64 (91.4)	48 (82.8)	61 (87.1)	92 (86.0)	106 (84.8)	32 (100)	177 (92.2)	176 (81.5)	161 (80.1)	181 (81.2)	393 (85.1)	302 (81.6)	695 (83.5)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15)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14번의 ①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의 [그림 3-4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만족한다가 34.3%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한다가 16.0%로 나타나서 약 2배 이상의 만족도가 불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2]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범대(50.0%), 법정대(41.6%), 인문대(33.3%), 자연대(33.3%), 경상대(33.2%), 생명대(30.0%), 공과대(29.4%), 해양대(22.2%) 순으로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3학년(41.0%), 2학년(35.0%), 4학년(31.7%), 1학년(20.0%) 순으로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보면, 만족한다가 남학생(27.9%) 보다 여학생(40.3%)이 더 많아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 우 불만족	1 (3.3)	2 (8.3)	3 (12.5)			1 (11.1)	1 (6.7)			3 (20.0)	3 (7.5)	1 (2.6)	1 (5.6)	4 (5.9)	4 (6.0)	8 (5.9)
불만족	3 (10.0)	4 (16.7)	4 (16.7)		1 (10.0)		1 (6.7)			4 (26.7)	2 (5.0)	5 (12.8)	2 (11.1)	5 (7.4)	8 (11.9)	13 (9.6)
보 통	16 (53.3)	8 (33.3)	9 (37.5)	3 (50.0)	6 (60.0)	6 (66.7)	8 (53.3)	12 (70.6)		5 (33.3)	21 (52.5)	17 (43.6)	2 (11.1)	40 (58.9)	28 (41.8)	68 (50.4)
만 족	9 (30.0)	9 (37.5)	7 (29.2)	3 (50.0)	1 (10.0)	2 (22.2)	5 (33.3)	4 (23.5)		2 (13.3)	12 (30.0)	14 (35.9)	12 (66.7)	16 (23.5)	24 (35.8)	40 (29.7)
매 우 만 족	1 (3.3)	1 (4.2)	1 (4.2)		2 (20.0)			1 (5.9)		1 (6.7)	2 (5.0)	2 (5.1)	1 (5.6)	3 (4.4)	3 (4.5)	6 (4.4)
계	30 (100)	24 (100)	24 (100)	6 (100)	10 (100)	9 (100)	15 (100)	17 (100)		15 (100)	40 (100)	39 (100)	18 (100)	68 (100)	67 (100)	135 (100)

16)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는 아래의 [그림 3-4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다가 57.1%, 없다가 42.9%로 많은 학생들이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66.0%), 공과대(60.8%), 자연대(60.7%), 해양대(58.6%), 인문대(55.5%), 생명대(53.4%), 사범대(52.9%), 법정대(52.2%), 의과대(25.0%) 순으로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70.3%), 2학년(58.8%), 3학년(58.7%), 4학년(42.6%) 순으로 수강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를 성별에 따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학생(57.1%)과 여학생(57.0%)이 수강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76 (55.5)	48 (52.2)	93 (66.0)	37 (25.9)	31 (53.4)	41 (58.6)	65 (60.7)	76 (60.8)	8 (25.0)	135 (70.3)	127 (58.8)	118 (58.7)	95 (42.6)	264 (57.1)	211 (57.0)	475 (57.1)
없다	61 (44.5)	44 (47.8)	48 (34.0)	33 (47.1)	27 (46.6)	29 (41.4)	42 (39.3)	49 (39.2)	24 (75.0)	57 (29.7)	89 (41.2)	83 (41.3)	128 (57.4)	198 (42.9)	159 (43.0)	357 (42.9)
계	137 (100)	92 (100)	141 (100)	70 (100)	58 (100)	70 (100)	107 (100)	125 (100)	32 (100)	192 (100)	216 (100)	201 (100)	223 (100)	462 (100)	370 (100)	832 (100)

17) 우리 대학에 바라는 점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우리 대학에 바라는 점을 살펴보면, 각 단대별로 공통적인 사항은 등록금 인상 반대와 취업문제 등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 3-44참조>). 각 단대별로 살펴보면 인문대는 넓고 노후한 대학시설 개선 및 스쿨버스 운행 연장 등을 바라고 있었으며, 법정대는 수업의 질적 향상 및 교수와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경상대는 등록금 인상 반대, 취업, 또는 학사문제로 어느 부서에 찾아 가더라도 친절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학생들의 전공지식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사범대는 열악한 환경개선 및 다양한 스쿨버스 노선의 운영을 바라고 있으며, 생명대는 보다 나은 교육시설 및 넓고 노후한 건물의 개·보수를 바라고 있었다. 해양대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학생 수준, 흥미를 고려한 수업을 요망한다고 하였으며, 자연대는 진로에 대한 수업 편성의 증가와 편성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학정책 수립, 수의대의 단대 분리 및 건물 설립, 보다 나은 교육시설, 다양한 교내식당 운영, 모든 학과에 동등한 지원 및 스쿨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과대는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의과대는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확장 및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꼽았다.

<표 3-44> 우리 대학에 바라는 사항

구분	우리 대학에 바라는 사항	빈 도
인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고 노후한 대학시설 개선 · 스쿨버스 운행 및 순환버스 운행 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인상 반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장학금 혜택 마련 · 취업 대책 마련 · 학생들을 위한 학교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하고 실력있는 교수 등용 · 화장실 시설 보완 · 학교의 위상 향상 · 폭 넓은 강의과목 개설(폐강이 너무 많음) ·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요구 · 대학의 공공성 및 학생복지 강화 	★★

구분	우리 대학에 바라는 사항	빈 도
법정대	· 등록금 인상 반대	★★★★★★★★★
	· 취업률 향상 및 프로그램 활성화	★★★★★
	· 수업의 질적 향상	★★
	· 교수와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경상대	· 등록금 인상 반대 · 취업문제	★★★
	· 취업교육, 많은 정보와 학습의 기회 마련 · 취업, 또는 학사문제로 어느 부서에 찾아 가더라도 친절하게 응대 요망 · 전공지식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	★★
사범대	· 열악한 환경개선	★★★
	· 취업 대책 마련 · 다양한 스쿨버스 노선의 운행(교외까지 확대) · 강의실 환경개선 · 등록금 인상 반대	★★
생명대	· 취업 대책 마련	★★★
	· 등록금 인상 반대 · 낡고 노후한 건물의 개보수	★★
해양대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 취업 대책 마련	★★★
	· 학생 수준, 흥미를 고려한 수업	★★
자연대	·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취업정보 프로그램 · 진로와 관련된 수업편성의 증가	★★★★★★
	· 등록금 인상 반대	★★★★★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학정책 수립 · 수의대의 단대 분리와 건물 설립 · 보다 나은 교육시설	★★★
	· 다양한 교내 식당 운영 · 모든 학과에 동등한 지원 · 수업시간내에 스쿨버스 운영(오후 6시까지)	★★
공과대	· 등록금 인상 반대 · 취업 지원과 대책 마련	★★★★★★
	·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
	· 다양한 학교 스쿨버스 운행(교외까지 확대)	★★
의과대	· 등록금 인상 반대	★★★★
	·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확장 · 홍보 활성화	★★★
	·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조사는 2006학년도 재학생들의 ① 개인 및 가정생활, ② 본교, ③ 대학생활, ④ 개인 생활·가치관, ⑤ 취업관련 사항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학생들 중 학부(과) 및 학년별로 설문에 응답한 850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을 제외한 83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설문응답들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학, 성 및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응답자 중 재학생들의 87.4%는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제주도였으며, 부산, 울산 및 경남 3.6%, 서울 2.2%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대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사범대는 98.6%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제주도였으며, 법정대는 전체의 96.7%, 인문대 9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29.6%, 진로 27.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비 부담은 재학생 전체의 80.3%가 부모였으며, 12.0%가 본인, 5.6%가 장학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교 관련사항 중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38.9%가 저렴한 등록금을 들었으며, 학과(부) 12.7%, 통학거리 및 교통 11.7%, 장학금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에서 가장 불만족한 부분은 20.2%가 취업 가능성으로 응답하였으며, 미래 전망 19.7%, 학교 시설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에 대한 긍지는 재학생 전체의 19.1%만이 본교에 대하여 자랑스럽다고 하였으며, 13.1%가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본교에 대한 긍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의 67.5%가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고,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은 7.7%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휴학 계획은 재학생 전체의 27.8%가 휴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없음은 50.1%로 나타났다.

셋째, 본교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학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재학생 전체의 60.5%가 학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5.5%로 나타났으며, 복수전공 계획을 살펴보면 재학생 전체의 25.6%가 복수전공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전공영역 바꿀 계획은 재학생 전체 중 5.9%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은 진로(취업) 지도(29.8%)를 원하고 있으며, 해박한 지식 전달(15.9%), 학생에 대한 이해(1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36.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11.1%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강의 전달력 부족이 23.2%,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 22.1%, 강의준비 부족 15.8% 등의 순으로 불만족 이유가 나타났다.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전체의 45.1%가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라고 응답하였으며, 강의방법 다양화 17.2%, 철저한 강의준비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강의형태는 강의 중심 38.9%, 토의 중심 24.6%, 실험·실습 중심 23.7%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생활관 및 가치관 관련 중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준비(37.0%), 전공지식의 습득(17.3%), 해외여행·연수(16.5%) 등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15~30만원이 전체 51.2%로 나타났으며, 용돈 출처는 부모 63.7%, 본인 29.3% 등이며, 용돈 주사용처를 살펴보면, 53.2%가 교통비·식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오락 및 문화생활비로 16.6%가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으로는 용돈마련이 전체의 67.9%로 나타났으며, 폭넓은 사회경험 14.2% 등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흡연여부는 안한다가 69.4%로 나타났으며, 음주여부는 가끔씩 한다 42.3%, 보통이다 27.5%, 자주 한다 14.8%, 안한다 10.6%, 습관적으로 한다 4.8%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여부는 76.1%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는 원만하다가 57.7%, 원만하지 못하다가 3.8% 등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로는 성격 차이(28.2%), 가치관 차이 및 접촉 기회의 부족(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사항 중 졸업 후 진로에 관하여 살펴보면, 취업이 전체의 58.5%, 미정 15.5%,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이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적성이 전체의 47.2%, 수입 32.5% 등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외국어 실력으로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28.2%, 인·적성검사 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가 68.9%, 도움이 안 될 것이다 7.8%로 나타나 현재 전공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원 인지여부는 알고 있다가 58.9%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는 재학생 중 이용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65.2%가 이용하였다로 응답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를 살펴보면, 받고 싶다가 전체의 53.0%로 나타났으며, 받고 싶지 않다는 8.9%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받고 싶은 상담 선호도를 살펴보면, 전체 중 81.9%가 학업 및 적성진로 관련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받고 싶은 심리검사 등은 Holland 적성탐색검사가 62.4%, MBIT 성격유형검사가 49.8%, MMIP 다면적 인성검사가 38.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진로탐색과 취업전략 프로그램이 전체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성장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이 28.3%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는 없다가 74.2%, 있다가 25.8%로 나타났으며,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6.8%, 불만족이 20.0%로 나타났다.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를 살펴보면, 있다가 69.5%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83.5%가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한 경우는 16.5%에 불과하였다. 수강한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가 34.3%로 불만족한다 16.0%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는 있다가 57.1%, 없다가 42.9로 나타났다.

2. 결론

재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본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사행정 방향을 개선하여 나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결과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내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의 강화가 필요하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 또는 진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이유도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이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내용 및 심리검사도 모두 취업, 또는 진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신입생들의 관심 및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 및 진학 관련 상담 및 심리검사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원 내의 타 부서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직업능력개발원의 취업 관련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을 살펴보면, 저렴한 등록금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싸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으며, 기타 건의사항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각 단대별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우리 대학의 학비문제 지원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제고하여 재학생의 휴학 계획의 이유가 되는 경제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비보조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의 확대 운영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넷째, 본교에 대한 불만족도 중 취업 가능성 및 미래 전망에 대한 해결과 선택한 학과(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학생들이 학과(부)에 만족하지만, 5.5% 정도가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과제도를 확대한다면 타 학교로의 편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학년이 2~4학년에 비해 전공을 바꿀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하여 교수들이 진로지도와 함께 개인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특히 취업 관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자료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문제 해결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충원 및 각종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06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통계조사 결과가 결코 학생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다 알려 주는 것은 아니며, 물론 100%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초기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다방면에 걸친 고민과 생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밝혀진 생각과 의견을 반영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과제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대학 당국에 감사드리며, 연구 결과가 우리 대학의 정책수립 및 학생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두화(2004).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5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창일의 6인(2001). '재학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소황옥, 전철은, 이호웅(2004). '2004 신입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11. 1-36.
- 이천수(2005). '2005 신입생·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대진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 세계일보(2004). 대학 구조조정 해외 사례. 2004. 9. 6.

<Abstract>

The Survey on Cheju University Students 2006

Kim Min-chul, Kim Doo-hw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of students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basic information and desirable direction for the education program. The data collection was based on survey questionnaire by all department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intersection analysis etc were conducted with the SPSS 12.0 version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enforcement of career and job counseling is needed. Second, the results showed the proper increasing of tuition fees is considered. Third, extension of scholarships would be needed. Forth, planning for the role's enforcement of CNU career center is needed.